

2022
No.116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에너지플러스카드 Edition2

최대 15%

지금은 최대 15% 주유할인카드 시대!

e+ energy plus



- ⊕ 에너지플러스앱으로 간편하게 **15% 주유 할인**
- ⊕ 실물 카드결제시에도 **10% 주유할인**
- ⊕ 주차, 세차, 정비 시에도 **5% 할인**

※ 앱결제 가능 주유소는 에너지플러스 앱에서 확인 가능

연회비 : 국내전용/국내외겸용(VISA) 1만원,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일시불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 3%, 무이자할부 :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 3%,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여신 협회 심의필 2022-C2b-06945(2022-08-11 ~ 2023-08-10)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



• Nice to meet samyang •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차별화된
약물 전달 기술의 첨단 신약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삼양홀딩스 | 삼양사 | 삼양패키징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학 | 삼양이노켄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 KCI | 엔씨켄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EP형가리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삼양EP베트남 | 삼양바이오팜USA | 삼양바이오팜형가리 | 양명·수당재단

samyang
life's ingredients

삼양홀딩스 회장 김 윤 (경영79)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2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	행사명	장소
2월 25일(금)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온/오프라인 방식
3월 24일(목)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 서면회의
4월 23일(토) 09:00	제10회 걷기행사	취소
5월 9일(월)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아시안라이브
9월 21일(수) 12시경	골프대회(전 교우)	원주 오크밸리
10월 18일(화)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수당 패컬티하우스
10월 18일(화) 17:00	야구부 후원금 전달	인촌기념관
10월 20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 서면회의
10월 29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참살이길
12월 1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층)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추모의 글
- 13_ 하반기 상임이사회
- 16_ 친선 골프대회
- 22_ 95학번 만남의 날
- 24_ 교우의 밤 장학금모금_95학번
- 28_ 교우 인터뷰
- 33_ 교우동정
- 35_ 교우기고_시
- 36_ 교우기고_수필
- 38_ 교우기고_여행기
- 45_ 교수칼럼
- 48_ 학번별 소식
- 70_ 경영대 소식
- 74_ 모교 소식
- 76_ 회비납부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2 통권 제116호 Vol.38

발행일 2022년 10월 28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경영대학 교우회장
편집인 신학기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전문경영인 (故) 정장호 회장님을 추모하면서



정장호 제4대 경영대학 교우회장
(경영59학번, 재임기간 2003~2006)

(고) 정장호 회장님은 저에게는 대학 2년 선배이신 경영대학 59학번이십니다. ROTC 1기로 훈련을 받으시면서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재학 중에 후배들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고 우리 후배들에게 꿈도 함께 심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정 회장님은 사회 첫발을 LG그룹에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기획, 경리 분야에서 출발하셨으나, 본인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신규사업과 해외 마케팅 전문가로 발탁되었고 결국에는 현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산업 분야를 이끌게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선구자로서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이동통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인재를 바탕으로 LG정보통신이 CDMA 기술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LG정보통신을 세계적인 통신업체로 성장시킨 (고) 정장호 회장님은 후배들이 따르며 닦고 싶은 성공한 전문경영인으로 인생의 좌표가 되신 선배님이십니다.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후배들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고 선도하여 주셨던 모습은 바로 고려대학교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상임이사 중심에서 학번 동기회 중심으로 개편 운용하여 일반 교우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교우회의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프린트물



“호상”지를 책자 스타일로 변경하여 연간 4회 분기별 발행을 정착화 시켰습니다. 또한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은행사를 정례화하여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시는 등 세심하게 교우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ROTC 출신 장기복무 후배 현역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ROTC 출신 졸업생 모임인 무호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여 무호회가 지금까지 이어 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고인의 고대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려중앙학원의 재단 감사를 역임하시고 전체 교우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정 회장님 하면 고려대학교를 떼어 놓고는 기억이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저 세상에서도 늘 마음의 고향으로 고려대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여름 해외 출장 중에 (고) 정장호 회장님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을 듣고 평소 가깝게 모시던 선배님을 직접 조문하지 못하여 마음이 무거웠으나, 이렇게 선배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선배님을 따르던 모든 분들과 함께 (고) 정장호 회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제5대 회장 **김승유**(경영61)



2003 교우의 밤 당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들과 함께



2003 교우의 밤



교우의 밤



2007 교우의 밤에서 감사패 증정

2004 교우의 밤 당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들과 함께



2006 스승의 날 사은회



2005년 교우의 밤 당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들과 함께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학번별 회장단회의

송기철 교수님을 추모하며



송기철 명예교수
(상 46학번)

송 교수님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1925년 3월 17일생이시며, 부 송언섭, 모 오정자의 1남 2녀 중 세 번째로 태어난 장남으로 은진 송씨 가문의 대학자입니다. 1956년 3월 경영대 전임강사로 출발하여 1960년 서독 쾰른大學에 유학하시어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 9월 본교 부교수로 봉직하시고 교수로서 기업경영 연구소장, 상과대학장, 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 1990년 8월 고려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시고 이어서 명예교수로 계셨다. 사회활동으로 1971년 5월 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하시고 보험학의 선구자 역할 및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송 교수님으로부터는 1955년에(소생 대학교 1학년 시절) 상업사, 1956년도에는 보험학총론 등의 강의를 들었다. 당시에는 대학교재도 없던 시절에 강의 노트를 가지고 후배·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기 위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열강을 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후일, 보험학 총론과 보험학 교재를 출간하시고 보험감독원(금감원), 보험 협회 및 보험 회사 등에서 강의도 하시고 KBS 등 언론 매체에서 경제 전망 등의 해설도 하셨다.

송 교수님은 3년 후배인 정치학과 출신 여자교우 백도순과 연애결혼(1956년경)으로 일가를 이루시고 슬하에 2남 2녀(4남매)를 두었다. 사모님을 비롯하여 장녀 영문학과(80), 차녀 경영학과(81), 장남 경영학과(83), 차남 한문학과(87), 사위 의예과 포함 총 7명이 교우인 점을 보아도 고대학풍, 고대정신이 뿔속까지 깊이 박힌 가족이다.

유상옥 회장과 함께 인자하신 송 교수님의 영정 앞에 섰을 때 행복한 웃음을 짓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평안한 영면을 기원하며 가족과 후배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55학번 동기회장 이득주

포은(蘓隱) 송기철(宋基澈) 선생님!

한 세기를 사시고 떠나셨으나 남은 가족과 고려대학교 제자 및 직접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 경영 관계자에게는 슬픔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1944년 보성전문학교 경제과, 1946년 9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상업학과 입학 이후 6.25직전 졸업, 대학원 진학, 교수(1956~1990)로서 고대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선생님의 전공은 고대 대학원 석사와 서독 쾰른대학 박사논문에서 자본주의 역사속의 한국 기업경영 역사(경영사, 상업사)를 뿌리부터 연구하셨습니다. 1990년 현직 교수에서 정년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서 30년 이상 산학협동 차원에서 기업경영 상담, 자문, 강의를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살아 있는 한국 경영학을 선도하셨습니다.

1970년대 고려대학교 총장과 제5공화국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상협 선생님의 어록 가운데 대학을 지성뿐만 아니라 야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때 LG그룹의 임원과 간부들이 모인 초청 대강연회에서 포은 선생님은 한국 재벌 그룹의 성격규명과 비교에서 三星은 지성(知性), 現代는 야성(野性), LG그룹은 주인 성씨가 다른 具씨와 許씨의 관계 속에서 人和를 바탕으로 한 덕성(德性)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수강한 LG구성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포은 선생님의 일생, 특히 젊은 학업·성장기간은 집안 경제가 가난하고 일제 식민지, 8.15이후 혼란과 6.25동란기, 전쟁으로 몰락한 서독의 어려운 재건기에서 유학시절(1957.9~1960.3)을 보내면서 학문을 개척하면서 결혼도 늦었습니다. 선생님과 나의 인연은 1960년 4.19때 고려대학교 상학과에 입학한 후 독일에서 귀국한 선생님과 독일어로 남다른 친분을 맺었고,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선생님의 부전공인 보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였습니다.

포은 선생님의 유해는 안암병원에서 장지로 떠나면서 바로 이웃의 경영대학을 잠시 둘러가도록 배종석 학장이 배려하였습니다. 경영대학에는 포은선생의 자취가 여러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발자취는 크게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남아 있습니다.

- ① 고려대학교 역사와 기록 100년사를 쓴 본인에게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셨고 본인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개교 90주년 때 특집으로 보성전문 법과 상과 역사에서 상과 역사를 대표적으로 집필하셨고, 4권의 자서전 및 회고록, 특히 「고려대학교와 나, 보경문화사, 2004」에서 체험기록(1944~1950)을 남겼습니다.
- ② 고대 박물관에 기증한 무상·유상의 자료입니다. 고대 최초의 장학증서로써 특대생 포상장 2매(1949.7, 1950.2), 경상대학 수석졸업장(1950.5)과 퇴임 후 거액(3억)을 들여 모은 중국 및 일본의 고미술 도감 시리즈를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 ③ 1970년 고대 최초의 단과대학 건축 모금 때 학장으로서는 큰 금액을 기부하고 그 후에도 교수로서 행사 때마다 장학금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경영관 건축 때 명예교수로서 1억 원을 기부하며 소회의실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선생님의 영정을 앞세우고 상주 등 유족 일행은 선생님의 위패와 함께 학교의 여러 곳(장학금 회사자 명패, 경영대학 역사관, 공동 명예교수실, 소세미나실 등)을 순방하였고 이 때 정진택 총장님도 배석하며 유가족을 위로하셨습니다. 포은 선생님은 100세까지 장수하셨지만 마지막 30년은 사모님의 작고로 외롭고 힘든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포은 선생님! 다음 세계는 부디 어려움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내세(來世)를 기원합니다. 은진 송씨 집안에서 4남매의 자녀와 7명의 손자(친손 4, 외손 3)들의 안녕을 함께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고제(高弟) 신수식 배상





2022년 하반기 비대면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



- 1 개최일 : 2022년 10월 20일(목)
- 2 경영대학장 학사 보고 :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송부
- 3 안건 보고

가. 2022년 상반기 사업 보고

1) 손익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1년6월 실적(A)	22년6월 실적(B)	전년동기 대비		21년12월 실적(C)	22년12월 예상(D)	전년 대비	
			증감(B-A)	달성(B/A)			증감(D-C)	달성(D/C)
총수입(A)	127,931	122,099	-5,832	95.4%	221,720	326,000	104,280	147.0%
광고 수입	15,000	27,500	12,500	183.3%	43,500	60,000	16,500	137.9%
회 비	106,850	91,570	-15,280	85.7%	170,640	170,000	-640	99.6%
교우의 밤 후원금	0	0	0	#DIV/0!	0	30,000	30,000	#DIV/0!
기타(이자 등)	6,081	3,029	-3,052	49.8%	7,580	66,000	58,420	870.7%
총지출(B)	86,568	96,758	10,190	111.8%	180,123	314,000	133,877	174.3%
인건비	44,749	35,963	-8,786	80.4%	78,539	74,000	-4,539	94.2%
회보 제작비	7,412	15,647	8,235	211.1%	24,464	26,000	1,536	106.3%
사업비	8,058	10,495	2,437	130.2%	16,398	27,000	10,602	164.7%
교우의 밤 행사비	0	13,000	13,000	#DIV/0!	0	135,000	135,000	#DIV/0!
사무실 유지비	21,487	19,428	-2,059	90.4%	40,206	39,000	-1,206	97.0%
기부금	0	0	0	#DIV/0!	0	3,000	3,000	#DIV/0!
세금과 공과금	4,278	2,147	-2,131	50.2%	6,961	4,500	-2,461	64.6%
기타(충당금 등)	584	78	-506	13.4%	13,555	5,500	-8,055	40.6%
당기 순이익(A-B)	41,363	25,341	-16,022	61.3%	41,597	12,000	-29,597	28.8%

● 교우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회비 납부 실적 저조

- 학교, 경영대학, 총교우회에는 상당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나, 경영대 교우회 임원 분담금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교우들이 상당수임
- 총수입 : 2022년 6말 -5,832천 원 감소, 2022년 12말(예상) +104,280천 원 증가
√ 12월1일 교우의 밤 행사 관련 후원금, 참가비 및 광고수입 +106,000천 원 증가
- 회비 : 2022년 6말 -15,280천 원 감소, 2022년 12말(예상) -640천 원 감소

● 코로나 사태 진정에 따라 경영대학의 밤 등 각종 행사의 정상 실시로 사업비 및 행사비 지출 증가

- 총지출 : 2022년 6말 +10,190천 원 증가, 2022년 12말(예상) +133,877천 원 증가
√ 인건비 : 2022년 6말 -8,786천 원 절감, 2022년 12말(예상) -4,539천 원 절감
√ 사업비 : 2022년 6말 +2,437천 원 증가, 2022년 12말(예상) +10,602천 원 증가
√ 교우의 밤 행사비 : 2022년 6말 +13,000천 원 증가, 2022년 12말(예상) +135,000천 원 증가
⇒ 당기순이익 : 2022년 6말 +25,341천 원, 2022년 12말(예상) +12,000천 원

● 향후 검토 과제

- 연말 송년행사 적자 매년 약 5천만 원 발생으로 송년행사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회비수입 지속적인 감소추세 : 11년 389M ⇒ 15년 219M ⇒ 21년 171M ⇒ 22년(예상) 170M
√ 물가상승 등으로 교우의 밤 행사 적자액은 점진적 증가 예상
• 교우의 밤 행사 적자액 : 16년 -55M, 17년 -44M, 18년 -48M, 19년 -54M, 22년(예상) -29M
- 경영대학의 밤 무료티켓 배포 최소화 필요
√ 2017년~2019년 평균 : 총 참석인원 569명【유료 366명(64.3%), 무료 203명(35.7%)】
√ 17년~19년 무료 참석인원 : 17년 185명(31.5%), 18년 197명(34.6%), 19년 229명(41.7%)

2) 2022년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예정사업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의 상반기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하반기 행사는 코로나 사태 진정 되어 가능한 계획대로 실시 예정임

일 자	행사명	참석자	비 고
3월 24일	상반기 상임이사회	대상 : 상임이사 약 370여명	• 비대면 서면회의로 실시 • 서면결의서 징구(46명, 약 13.0%)



일 자	행사명	참석자	비 고
3월 28일	교우회보 『호상』114호 발간		• 3,500부 발행
4월 23일	제10회 걷기대회		취 소
5월 9일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대상 : 명예교수 9명 대상 : 오찬 미참석 17분	• 코엑스 아시안 라이브 • 선물 발송
6월 27일	교우회보 『호상』115호 발간		• 3,500부 발행
9월 21일	경영대 교우 친선 골프대회	15팀(57명) 참석	• 오크밸리CC
10월 18일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선정 위원 5명	•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
10월 20일	하반기 상임이사회	대상 : 상임이사 약 370여명	• 비대면 서면회의로 실시
10월 29일	고연전 뒤풀이 축제	약 400명 참석 예상	• 참살이길 꼬끼꼬끼
11월 초	교우회보 『호상』116호 발간		• 3,500부 발행 예정
12월 1일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약 650명 참석 예상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나. 2022년 교우의 밤 관련 보고

(장학금 모금 : 95학번 동기회)

● 제 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6시20분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 호텔 비용 : 65,545,000원(식대 10% 할인 및 와인 콜키지 비용 포함)
√ 최소 보증 인원 550명 기준, 2019년 58,622,000원 대비 11.8% 증가
- 사회자 : 김현욱(고대 서문과92, 전 KBS 아나운서)
- 공 연 : 트로트 가수 홍진영, 고대 82학번 본세아바 합창단

● 경영대학장 초청 95학번 대표 모임 : 7월12일(화)

● 교우회장 직무대행 초청 95학번 대표 모임 : 8월25일(목)

친 선
골프대회

고려대 경영대학 교우회

친선 골프대회

원주 오크밸리 CC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강원도 원주 소재 오크밸리CC에서 경영대학 교우회 친선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72학번부터 14학번 교우까지 57명의 교우(00학번 이후 교우가 37%인 21명이 참가)가 3코스(오크, 메이플, 파인체리) 15팀으로 나누어 약 5시간 동안 라운딩을 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조성호(경영80)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열린 교우회 행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행사에 여러 학번의 교우님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날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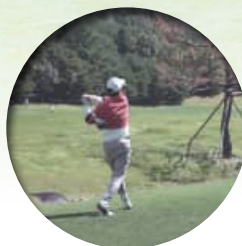
이날 대회에서는 80학번 이선용 교우가 신페리오 방식으로 70타를 기록하여 우승하였다. 메달리스트는 80학번 이봉기 교우가, 준우승은 80학번 김상연 교우가 차지했다. 이번에는 많은 교우가 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팀 최저타상, 오리상(다더블보기 상), 다양파상, 팀 최다타상을 신설하여 이번 골프대회에 재미를 더하였다.





골프대회 시상

우 승	이선용(80)	70타
메달리스트	이봉기(80)	77타
준 우 승	김상연(80)	77타
롱 기 스트	조정환(78)	240Yds
니어리스트	차선녕(78)	3.5미터
다 파 상	신창윤(80)	11개
다 보 기 상	조수민(02)	13개
팀 최저타상	오크2조	345타
감 사 상	어윤대 (전)총장님	
오 리 상	정세종(78)	14개
다 양 파 상	김성은(12)	5개
팀 최다타상	메이플5조	438타





친 선
골프대회





찬조해 주신 분들

조 성 호	경영80 / 회장 직무대행, 홍익대 교수	상품권 50만원
유 시 호	경영74 / 원일건설 회장	현금 100만원
박 재 완	경영78 / 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 대표	김태형 화가 호랑이 판화 액자(시가 150만원 상당)
김 동 원	경영78 / 경영대학 전 학장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3구 60set
홍 승	경영78 / 이사, Wworks 대표이사	헝슬리 오일 마스크팩, 썬 블록 등 화장품 4가지 60set
		썬비 워터볼 가슴기 살균기 60개
김 일 회	경영82 / 이사, 회계법인 정연 공인회계사	트리플콜라겐 24박스
80학번 동기회	회장 정창식	현금 100만원



약 5시간의 라운딩을 마친 후
만찬행사를 가졌으며
시상식과 함께 행운권 추첨시간도 가졌다.

이번 골프대회에 참가 교우 중 최고 학번인
최성진(경영72) 교우는 “우리 교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 오늘 같은 행사로
결속력을 다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각자의 건강과 힘을 돋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고려대 교우들의 공식 건배사인
“위하고!”를 외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3명의 여교우가 참석하였다.
여교우 대표 김은별(경영11) 교우는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다. 오랜만에 열린 교우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건배사로
“‘경영대학’을 선창하면 ‘영원하라’라고 화답해 달라.”
며 만찬장의 활기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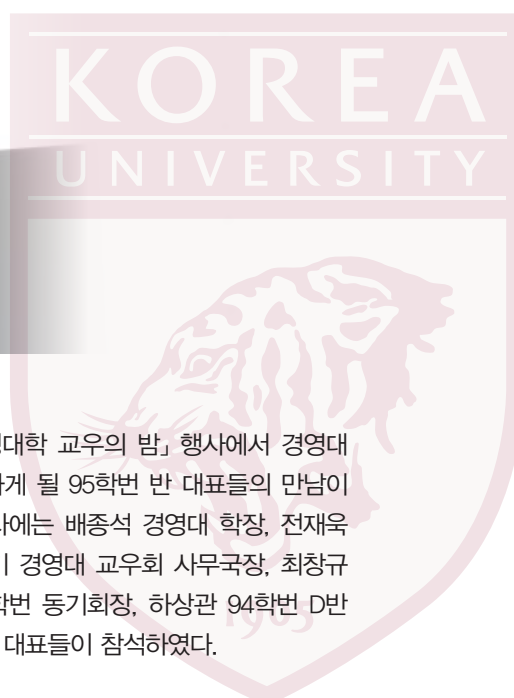


경영대학장 초청

95학번 교우 만남의 날

일 시 2022년 7월 12일 (화) 6시 30분

장 소 LG-POSCO 경영관 쿠크홀



2022년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서 경영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될 95학번 반 대표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종석 경영대 학장, 전재욱 경영대 부학장, 신학기 경영대 교우회 사무국장, 최창규 909회장, 김형인 94학번 동기회장, 하상관 94학번 D반 대표 및 95학번 각 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한 95학번 B반 대표 한승규 교우는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날로 좋아지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다. 학교에 대한 애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매년 개최하는 교우의 밤 행사에 올하는 95학번이 중심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모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D반 민대홍 교우는 “모교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용히 학교생활 했던 동기들마저 잘 독려하여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4학번 동기회장 김형인 교수는 “우리 94학번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들 잘 참여하였고 행사도 무사히 치루었다. 95학번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하였고 94학번 D반 대표인 하상관 교수는 건배사로 “비.행.기 -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며 95학번 각 반 대표들을 격려했다.

배종석 경영대학장은 “바쁘신데 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교우의 밤이라는 과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기들과 우정을 확인하고 여러 교우들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동기들과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고 교류하면서 모교에 대한 생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우 만남의 날’은 909회장 최창규 교수와 2019년도 모금 진행의 주인공인 94학번이 그동안에 개최해왔던 교우의 밤에 대한 설명과 모금 진행방식을 소개하고 95학번 각 반 대표들을 격려하며 2022년도 40회 행사를 성공리에 잘 치루자는 각오를 다지고 마무리 되었다.





이규원
95학번 동기회장

고대 경영대 95학번 동기들에게!

제가 경영학과를 입학한지도 어느덧 만 26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며, 그동안 많은 발전과 기쁨 그리고 위기와 시련 등을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졸업 후 많은 위기와 시련을 경험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우회 모임을 통해 동기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때 그 시절의 대학생살을 추억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제가 한층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모교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과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동기들에게, 교우님들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무한한 발전과 도움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95학번 동기들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의 이름을 더욱 빛내 주시기 바라며, 모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대 화이팅! 고대 경영 화이팅~



전영철
95학번 A반 대표

얼마 전 20년 만에 함께 입학했던 고대 경영A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월의 흔적들이 꽤나 자리를 잡은 40대 아저씨들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시절의 얼굴들이 모두 떠오르더군요.

만나기 전에는 얼굴이 가물가물했던 친구들도 늘 만났던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경영대 교우의 밤이라는 행사가 없었다면 아마 영영 그런 자리를 만들기 어려웠겠죠. 예전의 경험들을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의 경험과 추억들은 지금 조직에 있으면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에 더 잘 어울리고 주변의 많은 선·후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서로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분야 어떤 위치에서건 그 관계들을 활용해서 더 일이 쉽게 풀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고대 경영 덕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마움을 되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찬란하고 순수하고 마냥 행복했던 그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시절을 살고 있는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회사 내 동문들과 아주 가끔은 2차로 고대 정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직도 영업 중인 충주집 사장님도 뵈고, 이제는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인촌동상 잔디밭 벤치에도 앉아 보곤 합니다.

그만큼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번 교우의 밤 행사를 통해서 그 즐거웠던 추억을 다시 한 번 꺼내보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힘을 얻고자 합니다. 고대 경영 Forever!!



장동훈

95학번 B반 대표

지금도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학교 풍경이 떠오릅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보이는 탁 트인 운동장, 오후 노을 질 무렵 운동을 하며 트랙을 돌던
한 무리의 사람들. 비가 오는 날이면 추억 같이 젖어드는 아련한 건물들,
눈이 오면 유럽의 고성같이 유서 깊은 침묵을 지키던 그 곳. 인촌 동상 앞 잔디밭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기를 맥주 한 잔 하자고 불러내었던 그때는
눈을 감고 생각하면 설레는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대학 시절의 이러한 기억은 비단 저 혼자만 꺼내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같은 또래의 우리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고민을
숙성하고 또 노력하고, 치열하게 젊음을 치러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하루가 어제
같은 일상이라도, 그때만 떠올리면 봄날 같은 기분이 들어 기분이 묘해지곤 합니다.

입학을 한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른 학번처럼 우리 학번도 교우의 밤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일 같은 모든 것들이 비로소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번 경영대 교우의 밤 주관학번으로서의
자리도 그러한 듯합니다. 그리고 95학번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열심히 고학하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도 있다고 하여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동기와 어찌 보면 서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희미한 추억은 한잔 술로 선명해 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가 95학번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성훈

95학번 C반 대표

“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가셨어요? 서울대 경영이나 연세대 경영이 더 좋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이화여대 경영대생이랑 미팅했을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같이 나간 친구들은 얼굴이 시뻘게졌지만 전 웃으면서 얘기했죠.

“저는 수능 0.9%였어요. 서울대 경영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를 국내 최고의 경영대로 만들 거거든요.”

같이 나간 친구들은 박수를 치면서 “성훈아, 너 음료수는 내가 살게.”라고 환호했고,
입학한지 27년이 지난 지금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치고 대학 평가 14년째 국내 1위입니다.

공인회계사 합격자수도 5년째 1위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버드와 스탠퍼드, 뉴욕대와
버금갈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파이팅~~~



박상호

95학번 D반 대표)

코로나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 너무 정신없이 최근 몇 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모임도 어색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야 뭔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역시 고대였습니다!!

대학생 때 반대표가 평생 반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 가능한 동기들 물어 물어 연락처도 작성해보고 당시 교우수첩 사진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도 해보고 통화도 해보니 무려 이십 몇 년 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동기들과 술 한 잔 걸치고 둥글게 모여 “고대, 고대” 외치고 막걸리찬가와 엘리제를 부르고 했던. 아마도 그때의 추억 같은 시간은 다시는 못 느끼겠지만 올해 ‘경영대 교우의 밤’이 있다는 소식에 조금 설레긴 하네요.

졸업 후 보지 못했던 동기들도 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오고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든게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반대표라기보다는 그냥 연락책이긴 하지만 저로 인해 동기들이 한번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영대 교우의 밤에 고대 경영인으로서 뿌듯함을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95학번 D반 동기들!! 40대 후반의 우리 동기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라 이전 선배들만큼의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 관심만큼은 많이 갖도록 하재!!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하는 걸 보니 고대 경영학과가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우리 동기들 그 당시 대단했어~~



박용준

95학번 E반 대표

고려대 영문과를 나오신 고3 담임선생님 지도로 고려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본고사 하루 전인 소집일에야 처음 안암 캠퍼스를 방문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광석 형님도 해철 형님도 있었고 F학점을 받아도 낙담하지 않고 당당했었고 나그네 파전 한판이면 행복했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 차가 막혀도 학교 가는 게 즐거웠고 땀을 뺄뺄 흘리면서도 빨간 잠바를 입고 고연전이 열리는 잠실로 향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다 친구들아.

모두들 바쁘겠지만 꼭 시간 내어서 얼굴 보았으면 좋겠다.

제40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목) 18:2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Interview

배지성 교우

경영 13

Q1. 교우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성! 대한민국 육군 대위 배지성입니다. 저는 고려대 경영대학 13학번입니다. 고려대(102) 학생군사교육단(ROTC) 55기로 2017년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여 복무 중에 있습니다. 17사단 101연대 화생방장교로 약 2년간 임무수행을 했습니다. 이후 장기군요관 위탁교육 과정에 합격하여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장기군요관 위탁교육이란 군 의료 선진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 2년차 초급장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선발,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졸업 이후 군병원 인턴-대학병원 레지던트를 거쳐 군요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국가고시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Q2. 저희 경영대학 교수님들 중 여교우로서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여학생들이 ROTC에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ROTC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교로 30여 년 넘게 군에 몸담으셨습니다. 군인의 딸로 자라며 어릴 적부터 ‘군인아저씨’들이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갖고 안보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군인의 꿈을 꿔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에 붙어있는 ROTC 모집 홍보 안내를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많은 군인들처럼 대한민국 안보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3. 연세대 의과대학에 군 위탁 장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데 어떤 계기로 의과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요? 문과 출신으로서 의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처음 군에서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었을 때는 막연하게 군의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화생방장교의 역할 중 하나는 적의 화학탄, 생물학 공격, 핵 공격 등의 상황에서도 부대가 전투력을 잃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전상자 처리 과정 등을 배우고 전투력 유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군의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저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고 중위 때 다시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어려운 내용은 그냥 통으로 외웠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뒤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Q4,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경영대학 학창생활이 어떠한 도움이 됐습니까? 학교생활 중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발전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과 4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에는 어떤 식으로 자기계발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주변에 많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경영학의 다양한 갈래 안에서 관심 분야를 찾고 시험공부나 학회 활동 등에 매진하는 친구들, 선배들을 보면서 학업 외적인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르바이트와 학군단 생활을 하느라 교환학생을 못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쫓 다니고 바로 입대하고 의대까지 오다 보니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볼 때면 부러움을 느낍니다.

Q5. 배우자분도 ROTC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같은 고려대 ROTC 동문으로서 결혼 생활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부조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학군단 내 선후배 간 교류가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입단 후 현재의 남편과 거의 1년 간 인사만 하고 지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한 것은 아니어도 '선배 중에는 저 분이 제일 멋있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저도 딱히 무언가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연말에 가까운 어느 날, 단사에서 진행하는 사이버국방학과 면접 도우미에 자원해서 갔더니 남편이 저와 같은 면접실에 배치가 돼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 좋아서 더 알고 싶어졌고, 마침 여자 친구도 없다고 하여 제가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꼬시는(?) 데 성공하여 7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위로 전역하여 현재 회사에 다니고 저만 군에 남았습니다. 동문에 ROTC 경험까지 공유하다 보니 대학 이야기를 해도, 군대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후보생 과정과 훈련을 거쳐 장교생활을 한 것을 서로 알기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Q6.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다가오는 의사 국가고시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국군수도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게 됩니다. 4년 만에 군으로 돌아가 군 용사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야전에 있을 때에도 항상 의무복무 하는 용사들에게 고맙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그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군의관이 될 것이라 마음먹었습니다. 내년에 용사들을 만나면 제 다짐만큼 꼭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군대에 와서 아픈 용사들이 서럽지 않도록 진료하고 그들이 군 의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Q7. 경영대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을 통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금연, 금주가 대표적입니다. 알코올은 남성 하루 섭취량이 40g(소주 5잔) 이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초과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보다 적은 양의 음주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주가 최선입니다. 담배 또한 정말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구강암부터 방광암까지, 좋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꼭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어려우시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들여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Q8. ROTC에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복무 여건은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장교의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몇 개월 더 일찍 전역하는 친구들을 보며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장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만큼 장교에게는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 볼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만 24~25세 나이에 30여 명의 부대원을 책임지고 통솔하는 경험은 군인이 아니라면 해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가 되어 사회생활의 전초전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군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Q9.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진학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앞에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출신 교수님들이 이뤄놓은 많은 업적을 보며 저도 못지않게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 부담이 저를 나태해지게 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진학한 2013년 3월 이후 제 삶은 정체가 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곳에 진학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우동정



김영식 (경영75)

2022년 6월 15일 김영식 교수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연임되었다.



양동훈 (경영86)

2022년 7월 7일 양동훈 교수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에 선임되었다.



신동익 (경영79)

2022년 6월 신동익 교수가 메가마트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윤성천 (경영86)

2022년 8월 11일 윤성천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실장으로 선임되었다.



최원목 (경영79)

2022년 8월 29일 최원목 교수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김병철 (경영88)

2022년 8월 18일 김병철 교수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선임되었다.



이헌승 (경영81)

2022년 7월 22일 이헌승 교수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지영 (경영89)

2022년 10월 7일 최지영 교수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에 선임되었다.



허성무 (경영85)

2022년 9월 1일 허성무 교수가 한국성장금융 대표에 취임하였다.



김태준 (경영92)

2022년 7월 1일 김태준 교수가 브레인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권대영 (경영86)

2022년 9월 1일 권대영 교수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최재화 (경영04)

2022년 6월 10일 최재화 교수가 번개장터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 교수동정



신만수 (무역75)

2022년 8월 31일 모교
신만수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되었다.



김희천 (경영79)

2022년 9월 1일 모교
김희천 교수가 롯데그룹
인재개발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두희 (경영76)

2022년 8월 31일 모교
이두희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되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 열(경영78)	2022년 9월 24일 장녀 현정 양	오성호(경영79/전)사무국장	2022년 8월 12일 차남 상현 군
나해규(경영78)	2022년 11월 12일 장남 건웅 군	이승훈(경영79)	2022년 9월 18일 장녀 호선 양
이강석(경영78)	2022년 10월 9일 장녀 지은 양	정춘돌(경영79)	2022년 10월 23일 차녀 하림 양
한덕철(경영78/부회장)	2022년 9월 25일 장녀 희영 양	김도원(경영07)	2022년 10월 29일 본인 결혼
함중호(경영78/이사)	2022년 10월 8일 장남 영우 군	김소영(경영07)	2022년 8월 7일 본인 결혼
강창룡(경영79)	2022년 10월 22일 아들 민재 군	박정훈(경영10)·김보윤(경영12)	2022년 10월 8일 결혼
김상해(경영79/이사)	2022년 10월 22일 장남 준형 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송기철(상46/명예교수)	2022년 8월 9일 본인 별세	한호석(경영74/부회장)	2022년 7월 21일 모친상
황헌수(상48)	2022년 3월 본인 별세	이병일(경영78)	2022년 7월 16일 빙모상
김성현(경영55)	2022년 9월 6일 본인 별세	강봉성(경영79)	2022년 9월 3일 빙부상
이진우(상56)	2021년말 본인 별세	김성태(경영79)	2022년 9월 22일 빙모상
정장호(경영59/명예회장)	2022년 7월 25일 본인 별세	문봉성(경영79)	2022년 10월 17일 모친상
최학관(상60/이사)	2021년 12월 1일 본인 별세	박수원(경영79)	2022년 9월 22일 본인 별세
김병만(경영61)	2022년 5월 20일 본인 별세	하만우(경영80)	2022년 10월 13일 부친상
김지열(상67)	2021년 10월 본인 별세	박성용(경영81)	2022년 7월 10일 모친상
이한준(경영68/이사)	2022년 8월 1일 본인 별세	심웅섭(경영82)	2022년 7월 24일 빙부상
조상래(경영70)	2022년 8월 7일 본인 별세		

삶이 스쳐가는 소리

김진하
상66·시인

시골집 담벼락위에 누런 호박이 뒹굴고
투명한 햇살이 멍석에 깔아놓은 고추 위에 머문다

날씨가 서늘해진다
자정이 넘었는데 잠자리에 들기가 싫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잠속에 파문을 수야!

가을이 돼서 그런가
인생이 요즘 들어 왜 이래 서글퍼지는가?
돌아가야 할 고향, 대지가 가까워진다

만신이 물 먹은 솜처럼 착 가라앉는다
그런데도 여인의 하얀, 포동포동한 벗은 발
양징스런 발가락이 왜 저래 매혹적인가?
저주스런 이율배반의 몸과 마음이다

삶이 스쳐가는 소리
삶이 허망하게 흘러가는 소리
삶이 늙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인생은 풀잎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어느 순간 추락하는 이슬방울인가!

짜투리 시간

황인강
상61 · 수필가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허투루 흘려보내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간혹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동할 때 ‘동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아무래도 가는 방향과 코스를 안전 제일주의로 행해짐으로 경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 공간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다.

10여 년 전, 목요일마다 고양시 화정(花井)에서 용산문화원으로 수필공부를 위해 지하철로 이동을 한다. 공덕역에서 하차하여 용산문화원까지 걷기 시작했다. 짧은 거리가 아니다. 5km는 족히 된다. 언덕을 오르고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운동이 된다면 힘들어도 참고 해나갔다. 시간이 흘러 걷기훈련이 되어서인지 걷기에 자신이 생겼다. 나의 용산문화원까지 가는 동선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방법도 조금은 특이하다.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지만 나는 오가는 사람들이 뜸한 길로 걸어 다음 역인 원당으로 향한다. 걷기 운동을 위해서다.

아파트는 화정이지만 걷기가 편리한 원당역을 이용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걸으면서 좋아하는 명언과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격려의 문구를 암송하며 소리 내어 보기도 한다. 15분 거리를 걷으며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한다. 어느 새 역에 도착한다. 3, 6호선을 갈아타며 공덕역까지 간다. 지하철 안은 거의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을 열고 열심히 보며 목적지에서 내리고 탄다. 많은 승객들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한 방법이라.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조금은 아쉽다.

신문은 일간지와 경제지 한 가지씩 본다. 재미없는 경제지는 주로 차안에서 읽는다. 어차피 지하철 안에 있는 시간은 100% 나의 시간 아닌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기에 안성맞춤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하철 안이기도하다. 꼭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 신경을 쓴다. 옆 사람에게 폐를 주어서는 안 되기에 가급적이면 좁게 접어 읽는다. 접는 소리와 옆 사람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 여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중년 째 되어 보이는 사람이 거슬린다며 투덜거리는 경험을 했다. 그 이후부터 더욱 조심하게 된다.



공덕역에서 문화원까지 걷는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름에는 땀이 나지만 언제부턴가 단련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걷는다.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단화 등산구두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신고 걸으면 많은 운동이 될 것 같아 그 구두를 신고 다녔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나름 생각했다. 30년 전 신었던 무거운 단화 등산화다. 오래 되었어도 깨끗하고 멀쩡했다. 투박한 구두는 무거워서 보통의 구두보다 2~3배의 걷기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마치 1.21 사태의 김신조 공비들이 훈련 때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달고 달렸다는 것처럼 하체에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였다.

그 덕분인지 다음 해 63빌딩 계단 오르기 대회에 도전하기도 했다. 같은 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중국 당송시대의 문장가 팔대가(八大家)의 한사람인 구양수(歐陽修)는 공부하기 좋은 장소로 3상을 거론했다. 말 위인 마상(馬上), 침대 위인 침상(寢上), 뒷간 인 측상(廁上)을 말이다. 세 곳이 짜투리 시간의 활용이라고 예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말 위는 지금의 지하철 버스가 아닐까.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TV만 보지 않는 것, 뒷간을 이용하게 될 때 맑은 정신과

조용한 시간이므로 제격이라는 뜻일 게다.

남을 기다리는 시간, 할 일 없이 앉아 있거나 서있을 때,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각양각색의 시간 활용을 하므로 범인(凡人)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세세한 부분까지 시간을 활용하라는 그 상상력에 감탄한다. 하버드대학 입구는 넓은 잔디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화단을 가로 질러 강의실로 가기에 잔디 화단이 망가졌다. 팻말을 붙여도 여전히 그 화단 옆으로 다녀, 할 수없이 학교에서도 화단에 새로운 길을 예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동선에 따른 장점과 잇점을 구분하여 결국 새로운 길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겼다는 것은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는 증거다.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멋진 환경조성을 하였으니 필요한 공간 이용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짜투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시간과 공간을 얻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 반경이다. 허투루 한 시간을 찾아 의미 있게 사용하여 시간과 금전, 열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효과적이라 하겠는가.

이베리아반도

여행기



허 창 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11월 29일(수) - ②

오늘의 마지막 여정인 말라가로 떠났다. 말라가는 파블로 피카소의 고향이다.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짙게 어둠이 깔렸다. 이 시 또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작은 규모의 피한지 및 관광도시이고, 현재 안달루시아 지역 말라가주의 주도이다.

인구는 55만 명. 사람들은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거나 선풍 및 해수욕을 즐긴다. 말라가시는 일조량이 많아 시내에는 언제나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마르베야와 푸엔히롤라 등 몇몇 해변에는 소나무 숲이 해안까지 펼쳐져 있어 일급의 휴식처로 손색이 없다.

이곳은 기원전 12세기에 페니키아인이 세웠고, 그 후 로마와 서고트족에게 정복되었으며, 711년 무어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무어인이 다스리는 동안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가 그리스도교도들에게 넘어간 것은 1487년 8월 19일이었다.



피카소 생가

우리는 먼저 메르세데 광장 16번가에 있는 피카소 생가를 보러 갔다. 생가에 이르기 전 공원 안 피카소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고 한참을 지체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피카소는 여기서 태어나 14세에 바르셀로나로 떠날 때까지 유소년시절을 보냈다. 말라가 피카소미술관은 그의 작품 몇 점을 비롯하여 현대 회화 작품들과 17세기 걸작들을 소장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어서 시내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이 현란했다. 시내 도처에 은빛 금빛으로 성모상, 예수상, 사슴상, 천사상, 목자를 상징하는 목동상 등을 각양각색으로 설치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자아냈다.

주요 유적으로는 무어인들의 성(城) 알카사바가 재건되어 박물관과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히브랄파로 성채는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명을 받고 있는 성채의 장관에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조상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로마인들이나 무어인들의 성채는 한양도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정교하며, 예술적인 건축미까지 겸비하고 있다.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때 진정한 발전은 있는 것이다.

말라가는 스페인에서 지중해 연안의 항구들 가운데서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중요하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철광석, 마른 과일, 올리브유, 오렌지, 레몬, 올리브, 멸치 통조림, 당도가 높은 말라가 포도주 등이다. 공업으로는 건축자재, 식품류, 양조, 비료, 섬유 등의 제조업이 주류를 이룬다.

오늘 너무 여러 곳을 돌았더니 몹시 피곤하다. 일찍 잠들어야겠다. 그래도 매일 일기는 쓰고 잔다.

무어인들의 성 '알카사바'





론다의 알라메다 델 타호
공원의 전망대



헤밍웨이 기념비

론다 누에보 다리



11월 30일 (목) - ① 어제저녁도 잘 잤다. 새벽 5시 기

상하여 여행기를 썼다. 7시 기상 벨이 울릴 때까지 썼다. 8시 조식, 9시 말라가 호텔을 떠나 론다로 향했다. 론다 또한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말라가 주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3만 7천 명. 가파른 협곡 위 고원지대에는 끝없는 평원이 이어진다. 한국의 마늘보다 훨씬 더 굵다는 마늘밭과 밀밭, 올리브 농장이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고원지대라 산정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사색하는 사람의 보행처럼 느리게 돌아간다. 풍력발전기 마다 반지름에 해당하는 35m의 날개 3개가 원을 그리며 유유히 돌아간다. 풍력발전기 하나를 건설하는데 약 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재생 에너지를 꾸준히 신장시킨다는 것이 스페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사들은 이 고장에 15세기에 들어와서 바위산 동굴 속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런 거처들을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곳곳에서 보았다.

이곳은 근대 투우의 창시자 프란시스코 로메로의 고향이다. 그는 처음으로 물레타라는 빨간 천을 사용하여 소를 흥분시키는 투우를 시작했다. 그의 손자 페드로 로메로는 투우사로 지내는 동안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약 6천 마리의 황소를 쓰러뜨렸던 전설적인 투우사로 기록되어 있다. 토로스 데 론다 광장에 있는 커다란 원형의 론다 투우장은 1785년 지어진 것으로 세비야 투우장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오래된 투우장이다. 내부는 바로크양식으로 지었고,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984년에 그 안에 투우박물관도 지었다. 투우는 잔인하다.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스페인사람들은 투우를 그들의 전통 문화로, 일종의 축제로 향유한다.

론다는 일본기업들의 투자가 많은 관광특구 지역이다. 거리에는 신호등이 없다.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길을 건넌다. 그래도 교통사고는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도 이 고장의 교통 관행을 따라 시내를 거닐었다. 어색했다.

론다 투우장을 보고 절벽 위에 자리한 알라메다 델 타호 공원을 갔다. 공원에서도 아찔한 협곡 아래를 보았지만, 전망대에서 또 내려다보았다. 절벽은 여러 개의 웅기항아리를 세워놓은 것 같은 암벽으로 되어있다. 론다는 300m 암벽 위에 세워진 도시여서 절벽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면 아슬아슬하다. 그 높은 절벽 위에 로마군과 이슬람군은 또 성벽을 구축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 내전 때 종군기자로서 전쟁의 양상을 직접 취재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론다에 머물면서 저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집필



세비아

했다. 우리는 헤밍웨이가 거닐면서 소설을 구상했다는 소위 '헤밍웨이 산책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이 도시 '누에보 다리(新橋)'위에서 왕당파를 지원하는 독일군을 물리치는 시민군을 절실하게 묘사했다. 버스 안에서 보았던 영화가 떠올랐다. 영화는 전쟁을 통해 돈독해지는 동지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다시 시내로 내려갔다. '누에보 다리'는 구시가와 신시가를 연결하는 다리로 120m 높이의 타호 협곡 위에 세워졌다. 길이가 자그마치 100m. 이 다리는 론다를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1751년 아라곤 지역의 천재 건축가 마르틴 데 알데후엘라가 짓기 시작하여 42년만인 1793년 완공했는데, 공사 기간 중 약 50여 명이나 사망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의 내전 기간에는 다리 중간 아치에 있는 공간은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는 슬픈 역사를 지닌 장소이다. 이에 비하여 '누에보 다리'저 아래 남서쪽으로 보이는 '안티보 다리(舊橋)'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고 볼품없다.

누에보 다리 건너편 가까운 곳에는 파라도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것은 중세 수도원이나 고성 또는 귀족의 저택을 개조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호텔이다.

스페인 은 예부터 식민지에서 가져온 금, 은 보화로 금은세공이 발달한 나라다. 평야가 넓어 농업도 발달했는데, 밀과 마늘 생산이 주종을 이룬다. 뒤늦게 목화 농업을 장려했는데, 그것은 영국 면화의 수입대금으로 식민지에서 가져온 금은 이 영국으로 대량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축산업의 발달로 가죽제품이 많고, 가죽 원단의 수출도 많이 한다. 한국의 의류업체도 1980년대 이후 스페인의 가죽 원단을 수입하여 가죽점퍼 등 여러 가지 가죽제품을 만들었다. 관광객들은 위와 같은 산업의 제품들을 시내 어느 상점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론다에서 중식을 하고 세비아로 향했다. 오후 2시 42분 세비아에 도착. 안달루시아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다. 안달루시아 지역은 세비아, 말라가, 코르도바, 하엔, 우엘바, 카디스, 알메리아, 그라나다 등으로 구성되는 스페인 최남단 지역으로 인구는 약 840만 명이고, 산업은 건지농법에 의한 밀, 포도, 올리브 등 지중해성 농작물을 생산한다. 공업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으나, 그라나다, 코르도바, 세비아 지방은 관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과달키비르강이 하엔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대서양에 이른다.

세비아의 옛 이름은 히스팔리스(Hispalis)이다. 과달키비르강 어귀에서 87km 상류 연안에 있다. 로마 시대에는 지방중심지로 번창하였

세비아 히랄다탑과 저자





세비아대성당 성물실의 무리요 <성모승천>



세비아대성당 종교회의실의 무리요 <성모수태>



보물실의 가운데 성 베드로 뺏 조각

고, 그 뒤 서고트인과 무어인의 지배를 받았다. 12세기에는 이슬람문화의 정수 알카사르 궁전, 히탈다 탑 등이 건축되었다. 1248년 페르난도 3세에 의하여 다시 에스파냐에 속하게 되고, 15세기 말에는 신대륙 무역의 기지로서 전성기를 맞아 에스파냐 최대의 성당과 대학 등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대형 선박의 출입이 편리한 카디스에 밀려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뒤 세비아는 역사적인 도시이자 여전히 보수적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거점도시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조선업이 발달하였고, 담배, 섬유, 농기구, 도자기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현재 인구는 약 70만 명.

한편 세비아는 화가 벨라스케스의 출생지이며, 무리요가 활약한 곳이다. 세비아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먼저 세비아 대성당을 찾았다. 세비아 대성당은 유럽에 있는 성당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다. 가장 높은 곳은 42m. 제일 큰 성당이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San Pietro Basilica)이고, 두 번째는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Saint Paul Cathedral)이다. 이 대성당이 있는 자리는 12세기 후반에 이슬람사원이 있었던 자리로 이슬람사원은 사라졌지만, 넓은 폭의 사원 형태는 메카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이슬람사원의 영향 때문이다. 1401년 착공하여 125년 후에 완공하였다. 이곳에는 세비아를 이슬람교도들로부터 되찾은 영웅 산 페르난도 왕을 비롯하여 스페인 중세기 왕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안치실 앞에는 무리요의 그림 <성모 수태>가 있는 종교회의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도 불리었던 종교재판도 행해졌다고 한다. 성물실의 정면 높은 벽에도 무리요의 그림 <성모 승천상>이 있다. 그 옆은 고야와 수르바란 등의 그림이 있는 성배실이다. 보물실의 가장 귀한 보물은 성 베드로의 뺏조각이다. 그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있는 베드로의 시신 중에서 뺏조각 한 개를 이 세비아성당에 기증했다고 한다. 안쪽에는 성령강림을 나타내는 스테인드그라스, 왕실에배당을 둘러싼 철책, 15세기의 합창대가 있다. 주 예배당에 있는 제대(祭臺)는 식민지에서 가져

클럼버스의 관





세비아 대성당

온 금 1.5 톤으로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36개의 장면으로 표현했고, 성경 속 인물 189 명을 금으로 장식하고, 성화 장면이 조각된 목재 제단은 황금색으로 채색했다.

성당 안 바닥은 많은 귀족들의 묘지로 빈틈이 없는데, 모두가 중세에 면죄부를 팔고 못자리를 내준 증좌이다. 돈 많은 귀족들만이 그렇게 천당행을 예약했던 것이다. 한곳에 베개를 세 개씩이나 베고 높다랗게 누워있는 묘가 있기에 누구의 묘냐고 물었더니 추기경의 묘라고 한다. 베개에도 등급이 있어 베개 하나는 주교, 2개는 대주교, 3개는 추기경의 시신에 고인다.

중앙복도 오른쪽에 콜럼버스의 묘가 있다. 스페인 땅에 묻지 말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에스파냐의 옛 왕국인 레온, 카스티야, 나바라, 아라곤을 상징하는 네 명의 왕들이 공중에 떠있는 그의 관을 메고 있다. 자세히 보면 네 왕의 모습이 다르다.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카스티야와 레온왕국의 두 왕은 앞줄의 좌측과 우측에서 고개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를 역적으로 몰아 곤경에 빠뜨렸던 아라곤과 나바라왕국의 두 왕은 뒷줄 좌측과 우측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카스티야의 이사벨 여왕으로 보이는 왕이 긴 칼로 석류를 찌고 있는 것은 이슬람 왕국을 그라나다에서 완전히 축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석류가 그라나다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는 본래 이탈리아 평민 출신이었다.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이사벨 여왕의 열렬한 후원으로 신대륙을 발견 후, 처음 약속대로 백작 지위와 신대륙 총독 지위를 얻게 되지만, 기대했던 만큼 금은보화를 스페인으로 가져오지 못했고, 이탈리아 평민 출신이라는 등의 이유로 스페인 귀족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투옥되었다가 결국 스페인에서 추방되었다. 스페인을 떠난 그는 서자 페르디난드(Ferdinand)와 함께 멕시코를 여행하다가 관절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 1506년 그의 나이 54세였다. 그의 유해는 처음 스페인 바야돌리드에 묻혔으나, 그가 처음 발견한 신대륙 도미니카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36년 후인 1542년 산토도밍고 대성당으로 옮겨졌다. 1795년 프랑스가 이 섬을 정복하자 유해는 다시 쿠바 아바나로 이장되었고, 1898년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 지금의 세비아 대성당으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유골의 진위 판정문제로 스페인과 도미니카 두 나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서자 페르디난드는 아버지 사후 곧 <콜럼버스 제독의 생애>라는 그 아버지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는 살인자, 노예 장수 등으로 실추된 콜럼버스의 명예를 일약 드높였다. 오늘날 세상이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면모는 주로 그 서자의 전기에 따른 것이다. 지금 세비아성당의 교황 전용 출입문 앞에는 서자 페르디난드의 묘가 성당 바닥에 있다.

현재 세비아 대성당에 남아있는 모스크의 흔적은 연못과 히랄다 종탑이 딸린 현관의 안뜰뿐이다. 히랄다 종탑은



세비아 황금의 탑

본래는 미나렛(기도시간을 알리는 뿔죽탑)이었는데, 수 세기에 걸쳐 종탑으로 개조되었다. 28개의 종과 신앙을 상징하는 여성상을 세워 풍향계 역할을 하게 했으며, 탑의 이름도 풍향계를 뜻하는 '히탈다'라고 불렸다.

산타쿠르즈 거리는 대성당과 알카사르(이슬람의 요새 또는 성)에 인접한 구시가지로서 옛 유대인 거주지였다. 17세기에는 세비아 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곳에 있는 교회 중 몇 곳은 원래 유대교 회당이였다. 안달루시아 전통가옥인 흰 벽의 집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레스토랑과 타파스(빵이나 고기를 얇게 썰어놓은 조각 요리로 세리주와 함께 먹었던 요리)가게가 많다.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의 무대가 된 집과 '돈 조반니'의 무대였던 병원이 이곳에 있다. 우리가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부르는 세빌리아는 이탈리아 말이다.

세비아 알카사르는 이슬람과 스페인 양식이 결합한 전형적인 무데하르(Mudejar) 양식의 건물이다. 무데하르란 기독교가 이베리아반도를 재탈환한 후 스페인에 남았던 이슬람교도를 말한다. 원래 핵심부는 무슬림 총독의 궁전으로 10세기에 건설되었던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스페인 왕실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알카사르가 본래 의도했던 '군주와 국가원수의 거주'라는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중세 초부터 현재까지 건축과 재건을 반복했으므로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까지 모든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건축물이다.

본래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성내에 있는 '소녀의 정원' 및 '인형의 정원' 주변 기둥에 조각된 섬세한 장식무늬는 매우 호화롭다. '대사의 방'의 기하학적 문양이 들어간 타일 기둥과 둥근 천장 장식은 정밀한 세공기법과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이곳은 손 코네리가 주연했던 <바람과 라이언>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호상 117호에 계속 연재

사 진 출 처

- 피카소 생가, 세비아, 세비아 대성당, 세비아의 석양 스페인관광청
- 무어인들의 성 '알카사바' 에스파냐가이드닷컴
- 콜럼버스의 관 더트레블닷컴
- 헤밍웨이 기념비, 론다 누에보다리 · 알라메다 델 타호 공원의 전망대, 세비아 황금의 탑 · 히탈다탑과 저자, 세비아대성당 내부 · 성물실의 무리요 <성모승천> · 종교회의실의 무리요 <성모수태> · 박물관의 가운데성 성베드로 뺏조각 허창무 교우 제공

세비아의 석양



고대 경영대의 해외인턴프로그램



조 성 하
경영60·경영대 명예교수

1. 대학 교육에 있어서 현장실습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 의과대학, 교육대학 등은 그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직업이 상당한 정도 확정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경우, 학생이 졸업 후 진출하게 될 직장에서 수행할 과업이 요구하는 자질과 자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 과정 즉 수련의 과정(의대)이나 수습교사 과정(교육대)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상과대학을 모태로 성립된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그 졸업생의 압도적 다수가 취업하는 직장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은 기업조직의 경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대학의 교육과정에 기업의 실무 현장에서의 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기업과 기업내 부서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 길지 않은 기간 동안의 현장 실습이 실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 관한 경험은 미래의 경영자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강의실 강의의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리라 믿어진다.

2. 하와이 대학 경영대학원의 국제 기업 탐방 프로그램

필자가 경영대학장직을 맡고 있던(1994년 5월로 기억됨) 어느 평일 몇 분의 교수님들이 학장실을 방문했다. 그 당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던 하와이 대학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국제기업 탐방 프로그램'(International Business Tour Program)의 탐방단을 인솔한 교수(서갑경 교수)와 회동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와이 대학이 소재한 지역(하와이 섬)에는 여행 및 관광업을 제외하면 그 당시 대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대 기업의 경영을 접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거리의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아시아 지역이 우선적 방문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방문단 인솔 지도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 사회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의 임원진들과도 광범위한 교류를 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적 방문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대학에도 그와 같은 해외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 학장실을 방문한 교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방문단의 방문을 수용해 줄 기업의 양해와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제반 비용 부담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을 참석했던 모든 교수가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모임을 끝냈다.

3. 상하이 교우와의 만남 및 프로그램의 시작

학생들의 국제 기업탐방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된 문의가 있던 그 다음 주에 필자는 상하이에서 오랜만에 귀국한 이평세 교우를 환영하기 위한 동기생들의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교우들과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제가 모교의 근황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그 전주에 있었던 비공식적인 교수모임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실시 계획과 소요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서, 다음 학장에게 미룰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끝을 맺었다. 그런데 돌연 상하이에서 온 이평세 교우가 “그것을 뒤로 미룬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니, 이번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15명 정도의 학생을 상하이에 보내고 상하이 주재 교우들이 나누어 인턴 사원으로 맡아서 숙식과 현장 실무 훈련을 시키고 돌려 보내 줄 테니 일단 실시 후 결과를 보며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었다. 이 교우의 제언을 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프로그램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실시 가능성을 크게 키워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날 아침, 필자는 출근 즉시, 학과장 두분, 그리고 하와이 대학 국제기업 투어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준 교수 등과 함께 상하이의 이 교우 제언에 대해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예상대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였고, 아직 여름 방학 시작까지 2개월 가까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즉시 준비에 착수하면 오는 방학에 프로그램 런칭이 가능하리라는 낙관을 표명해 주었다. 그에 따라 정식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프로그램 공식 출범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 어윤대 교수(제 15대 총장)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시 귀국한 교우를 만나는 과정에서 상하이 지역의 기업현장 실습에 학생들을 파견하려는 학교의 계획을 소개한 바, 자카르타 지역 교우들도 똑같은 협조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하와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국제기업 탐방단의 방한 소식을 접한 우리대학 교수들의 제안으로 비록 비공식적인 검토과정이지만 우리대학의 현재 여건으로는 오는 여름방학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기되었던 것이었으나, 외부의 교우들의 조언 및 협조 약속 등으로 해외기업 인턴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어 출범을 앞두고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우회에 이 프로그램 출범 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당시 경영대 교우회장이신 구두회 선배님께 연락해 인턴프로그램을 알려드렸다. 구회장님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즉시 교우회도 협조하는 의미로 참여 학생들에게 왕복 항공료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모든 준비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1994년 7월 세번째 주(추정)에 드디어 32명의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국제 기업 인턴 프로그램을 위해 상하이와 자카르타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곳에서 선배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4주 동안 받고 귀국하게 되는데, 모두 무사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빌었다.

4.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학생들보다 2주 늦게 학생들이 체류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는 교수들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8월 셋째 주에는 학생들도 전원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이들이 한 해 여름방학을 희생하고 참여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궁금했다. 아쉽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경영대학의 일차연도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소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어의 중요성

사용언어가 다른 외국에서 4주간 생활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불편에서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나. 강의실에서 배운 것이 다가 아니다.

인턴 수습 과정 중 강의실 강의에서 배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경험을 배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고려대학교 선배들의 모교 및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후배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배울 수 있게 안내해 준 선배들을 보고 많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한국의 저명한 기업가가 한 말이지만, 경영자가 되기 위해 해외에서 연수하고 온 학생들에게는 매우 실감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소감은 강의실 강의를 통해서도 실감나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기업인턴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는 무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서인지 국제기업인턴프로그램을 후임학생들도 계속 발전시켜 필자가 정년퇴직할 당시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소재한 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감독당국의 지나친 규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 회장 이득주

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

무더운 삼복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 모든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Ukraine)를 침공하여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자원문제, 교역문제 등 경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와 우리나라까지도 원유가격, 식료품가격 등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코로나 사태는 켄타우로스 BA2.75 등이 출현하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두가 고령이 되어 실생활 적응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를 잘 극복하시어 건강백수를 넘어 천수하시길 기원합니다.

●단편 소식 요약 보고

1. 모임 소식(2022. 6. 28 모임)

- 2022. 6. 28 모임은 상면을 위한 단순 모임이었으나 참석자 6명(강석찬, 신정식, 유상옥, 이순용, 현영국, 이득주)에 불과했음.
- 10월 7일 모임(출판기념과 병행) 예정임

2. 부음 소식

- 유영호(2022. 6. 15 작고), 김성현(2022. 9. 6 작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건강 소식 : 너무도 많은 인원이 건강이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 김정식, 이기현, 조군하 등의 부인들께서 외병 중임(퀘유를 빕니다)

4. 소통 현황 : 점점 잘 안 되고 있음

- 김윤환, 이관복 : 연락 안 됨
- 류택규 동기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우편물을 받고 있었다고 하나 향후는 우편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음.

5. 협찬 소식

- 유상옥(2022. 6. 4 금 일백만원), 현영국(2022. 6. 28 금 일백만원), 두 회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당부 사항 : 회원님들의 소재나 변동사항을 본인 또는 주변에서 밝혀주지 않을 경우 이들 소식이 완전 미궁에 빠지게 되니 친교가 있는 회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회장 이연상 / 총무 변동수

막수회 소식 ●●●

매월 빠짐없이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되던 경영대 56학번 모임인 막수회 모임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대부분 교우들이 백신 접종도 완료했고 또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월례 모임을 개최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월례모임에 참석하던 몇몇



오랜만에 개최된 막수회

교우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 못하게 되어 6개월간 연인원 42명만 참석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임에 참여해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이종순 동기는 우리 모임 비용 중 2달치나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찬조를 해주어 기금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2년간은 매년 말에 개최하던 56학번 동기회 정기총회 및 연말 친목모임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지 못했으나 금년 12월에는 3년 만에 정기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부탁한다. 이달 들어 반가운 소식은 이남주 동기가 주축이 되어 우리 막수회 모임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하였으니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동기간의 소식이나 또는 유익한 정보들을 교환하며 동기간의 우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해 연말경에 이진우 동기가 유명을 달리 했다는 소식을 근래 들었는데 가족과 우리 56동기회간에 비보 전달이 되지 않아 조문을 못 하는 큰 결례를 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먼저 떠난 이진우 동기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하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기 바란다. 남은 10월 11일 막수회 모임과 연말 정기 총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동참해서 우리 56동기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하는데 일조 해줄 것을 당부하며 호상116호를 통해 그간의 소식을 전한다.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동기회장 초청 여 동기 간담회 ●●●

6월 14일 오후1시, 9호선 삼성중앙역 앞 '해초록'에서 여 동기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민자 감사를 비롯하여 총 9명의 여 동기들이 참석하였고, 정시균 동기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함께 만나지 못해 소원했음을 양해를 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근황들을 교환하고, 졸업 후 60년 동안 남 동기들이 동기회장직을 맡아왔으므로 차기 회장은 여 동기가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개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12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회장을 추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았다.

삼목회(걷기모임) 소식 ●●●

- 매주 셋째 목요일에 만나 서울근교 둘레길을 걷고 있는 모임으로 10~15명이 만나고 있으며, 6월 16일 오후 12:30 조계사 정문 앞에서 만나 하준기 동기가 인근 이문설령탕에서 제공한 오찬으로 에너지 보충 후, 경복궁과 청와대를 문화해설사인 이경순 동기의 해설을 들으며 걸었다. 오랜만에 나온 정무광 동기가 2차 모임 비용을 부담하여, 청진동에서 술잔을 들며 2차로 요새 유행하는 빠빠따를 외치며 마른 목들을 축이고 헤어졌다.
- 6월 25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만나, 미국 비영리단체 6.25 Foundation이 주관하여 전쟁희생자를 기억하기위해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6.25에 개최하는 걷기행사 Liberty Walk/Seoul에 참여하여 용산 국립박물관까지 2시간 동안 걸으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있게 한 6.25 참전 미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 있는 걷기행사에 김승유, 김순구, 김우찬, 박인우, 박광욱, 성영일, 엄종일, 이근창, 이경순, 이원태, 이채영, 하준기 외 1명이 동참하였다.



삼목회-청와대 걷기



리버터워크



- 9월 15일 오전 11시 옛골 중점에서 만나 청계산 어둔골을 2시간에 걸쳐 걸으며, 가을 정취를 흠뻑 느꼈다. 지난 여름폭우로 청계산 계곡이 더 넓어지고 깊어졌을 뿐 아니라 각종 수목들이 쓰러지고 등산로도 유실되어 피해복구가 시급함을 느꼈다. 오찬은 정홍진 동기가 비용을 부담하였다. 다음달 행사는 교외의 천년고찰 용문사를 걷기로 하였다.

초암회(서초모임) 소식 ●●●

격월로 매 홀수 달에 반포동 '산들해'에서 7월과 9월에 만남을 가졌으며, 이사 등으로 동기가 15명으로 줄어들고 부부동반에서 스틱모임으로 바뀌고 매회 12~13명이 모여 오찬을 함께하며 짙한 우정들을 다지고 있다.

호비회(골프모임) 소식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만나 시원한 야외에서 하는 라운딩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동기들의 건강상태로 인원이 줄어 3팀을 간신히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도암회(오찬모임) 소식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3시 여의도 리버티타워 2층에서 김 실 회장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모이고 있으며, 6월 18일, (7월 여름방학), 8월 19일, (9월 추석방학) 모임을 가졌고 10월 21일에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백두산 모임 소식 ●●●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7월 7일 오후 1시 역삼동 고향마을에서 '백두산 및 고려유적지 탐방' 11주년 모임을 가졌다. 동기 중 두 번째로 우리 곁을 떠난 고 김문웅 동기의 연세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오전 10시에 문상한 후 모임 자리여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으나, 더욱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만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2차 탐방을 실현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오찬은 원용계 동기가 비용을 부담해주어 박수를 받았다.



백두산 모임

청춘대학(실버학교) 소식 ●●●

고대불자교우회 모임에 참가하는 7명의 동기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부정기적인 모임이 정기모임으로 바뀌면서 실버학교에서 청춘대학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 6월 24일 17:30 역삼동 '고향마을'에서 가진 모임에는 지리산 처녀 오영희 동기가 오랜만에 참석하였다. 7월 18일 17:00 역삼동 '고향마을'에서, 8월 24일 17:30 역삼동 '고향마을'에서 각각 만남을 가졌으며 오영희 동기가 보내준 맛있는 무화과로 후식을 즐겼다.



청춘대학-지리산 제1문 앞에서

9월 22일에는 지리산 자락의 함양에 사는 오영희 동기를 격려하고 지역 명승지를 관광하기 위해 코레일의 '역장투어 - 함양/지리산 지안재/오도재, 상림공원 꽃무룻 및 개평 한옥마을 기차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7:30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최민자 동기가 준비한 샌드위치와 박인우 동기가 마련한 떡을 먹으며 대전으로 가서 버스 편을 이용, 함양으로 향하여 투어를 시작했다. 지리산 지안재와 해발 773m에 위치한 지리산 제1문 오도재를 돌아보고, 오영희 동기가 기다리는 연음식전문점 '옥연가'에서 연향토음식과 반주로 입 호강을 한 후, 오 동기의 안내를 받아 신라 진성여왕 시절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함양태수로 있으면서 조성한 인공 숲인 일명 '천년의 숲'을 돌아보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100년이 넘는 한옥 60여 채로 마을을 이룬 개평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일두 정여창 고택, 풍천 노씨 대종가, 하동 정씨 고가, 오담 고택, 노참판댁 고가 등을 돌아본 후, 오 회원이 마련한 선물을 받아들고 대전으로 돌아와 KTX로 귀경하였다.

62 회장 윤갑중 / 총무 한상욱

경영62 팔순기념 가을여행 ●●●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 장소 : 강원도 철원

청명한 가을 날씨를 품에 안고, 경영대학 62학번 팔순기념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아직 단풍은 빨갛게 물들지 않았지만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62학번 동기회 동기와 부인을 포함하여 33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안보관광 일번지인 강원도 철원으로 출발.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애칭이 붙은 직탕폭포, 은하수교, 넓고 넓은 꽃밭이 펼쳐진 철원 9경 중 일경에 속하는 고석정 등을 관광하고 유명하다는 한우식당에서 즐겁게 주류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했다. 삼부연폭포를 관광하고 출발하여 차내에서 송준일 동기 부부의 노래를 듣고 환담을 나누었다. 의정부 휴게소에서 40여 분간 산책한 뒤로 잠실새내 '전주설렁탕'에서 주류를 곁들여 저녁을 마치고 다음 송년회 때 재회하기로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철원 가을여행

64 회장 김윤호 / 사무총장 민선용

64학번 동기회 주관 대학 행사 모임 ●●●

- 일 시 : 2022년 7월 12일(화)
- 장 소 : 과천 서울대공원
- 참가자 : 김윤호 회장, 권영기 사무총장, 유명식 부회장, 신준철 감사, 이석훈 이사와 경영대 영구 등산대장 고병선 외에 박명익, 박채길, 유성준, 이경희, 이용규 등 12명이 참석, 총 32명



64학번 동기회



64학번 동기회 회장 주관 대학인 경영대에서 모임을 마련하였는데 동기생 참가자의 주류를 이루었다. 법대 송대용, 전임 회장 조봉금 여학생 회장 등 고정 멤버가 함께 어울려 기념 촬영 후 전임 송대용 회장 아들이 고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검장 영전 턱으로 전원에게 배부한 블루베리 선물을 안주로 막걸리 마시고, 사당역에서 점심까지 사면서 동기생들과 함께 기쁜 영전 축하 잔치를 한 셈이고, 경영대 김윤호 회장도 동기회에 100만원을 찬조하여 더욱 풍성한 기금이 마련되게 하였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했던 동기회 모임은 향후 속행되어 더 많은 동기생들의 '얼굴 좀 봅시다.' 행사에 참가하자고 다짐하면서 7월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백수회 7월 등산모임 (회장 : 지동직) ●●●

- 일 시 : 2022년 7월 16일(토)
- 장 소 : 안산 봉수대(烽燧臺)

초복 날 여름 날씨에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햇볕을 가려주고 산들바람이 불어대는 안산 자락 길을 걸으면서 오늘은 영원한 산행 지도자이며 건강을 회복한 지동직 회장이 봉수대를 오르자고 제안하여 지난번 포기했던 정상을 올라가 멀리 북편의 산들과 산맥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은 산꼭대기를 우리의 만형 김현희 동기는 거뜬히 앞장서 걸었고, 강화에서 이사 온 안덕수동기가 최근 개근하면서 걷기를 즐기고, 멀리 양평에서 새벽같이 출발하여 한양에 오는 천창호 동기, 약방 감초처럼 동기회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이용규 동기는 하산하면서 아이스깨끼를 사줬고, 박씨 종친회 박명익, 박채길 동기는 떨어질 줄 모르고 붙어 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썰 풀고, 바윗길 따라 내려오니 점심으로 복날 삼계탕을 주문,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우면서 칭따오 맥주와 막걸리로 다시금 못다 푼 실타래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낸 하루였다. 동봉수대 터는 무악산에 있는 동, 서 두 개의 봉수대 중 동봉수대가 있던 자리인데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피워서 변방 병란이나 사변 등 긴급 사정을 중앙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통신체계며 총 5봉수대 중 제3봉수대는 평안도 강계-황해도-경기도-서울무악 동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를 받는 곳으로 1994년 서울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복원한 것이다.



백수회-안산 봉수대(烽燧臺) 걷기

백수회 9월 8인 걷기 ●●●

- 일 시 : 2022년 9월 17일(토)
- 장 소 : 남산

하늘이 먹구름으로 메운 늦여름 남산은 솔솔 부는 바람으로 걷기에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소나무 숲길이었다. 일 년에 몇 번씩 오는 남산 길은 철따라 변하는 풍광으로 보물 같은 서울의 중심에서 모든 이를 반겨주고 있었다. 소나무길 중간에서 쉼터에 앉아 먹는 새참은 유성준 동기가 무거운 마호병에 넣어온 오징어와 국물을 고루 배분해 줬고, 이용규 동기는 추석 명절에 준비한 밤, 포도와 칭따오 맥주를 꺼내고, 지동직 동기는 반찬통 가득한 과자와 너트, 유명식 동기는 만병통치 커피와 막걸리, 최종욱 동기는 잘 깎아 담아온 과일을, 박명익 동기는 족발이나 치킨, 박채길 동기가 가끔씩 구운 계란 등으로 자유토론을 벌이는 야외 찻집에 서의 시간은 영원에 접속되고 있는 걸까? 철학원 박사를 취득한 지산(芝山) 이용규 동기의 제안으로 나이도 들었으니 각자 호(號)를 신고해서 서로 부르자고 했고 호가 없는 동기들은 철학원 면허 보유하고 영업했던 훈구(勳具)선생 최종욱 동기에게 부탁하자고 했는데 국내 처음 칭따오 맥주 수입 선구자였던 훈구는 재주꾼이었다. 이날 이후 각자 제출한 호는 박명익 일범(逸凡), 박채길 두호(斗湖), 유성준



백수회-남산 8인의 걷기

운산(雲山), 유명식 설봉(雪峰), 이경희 동주(東州), 지동직 설산(雪山)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려오면서 돈까스 집에 들려 왕돈까스 주문자에게 막걸리 무한리필인데도 겨우 네 병만 마시고 예상외 저조한 실력은 몸을 사리는 음주였으리라. 비가 온다던 예보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빛나니 청명한 가을 날씨로 변하여 날씨처럼 활짝 웃고 우리는 헤어졌다.

등산회 9월 모임 (등산회장 : 김동훈, 등산대장: 고병선) ●●●

- 일 시 : 2022년 9월 24일(토)
- 장 소 : 우면산
- 참가자 : 고병선, 고충호, 권영기, 김귀분, 김상규, 김덕환, 김원태, 김윤호, 민선용, 박명익, 박채길, 박태웅, 송철호, 이강훈, 안덕수, 이용규, 지동직, 한만섭, 홍현묵, 김동훈, 이하자 (총 21명)



등산회-우면산 모임

풍수지리상 산 모양이 소가 졸고 있는 형상이라는 牛眠山에서 21명의 어르신들이 옥자지결 북적대는 바람에 오수(午睡)를 즐기던 우면산 神靈님을 화들짝 놀래게도 했다. 코로나19라는 역병(疫病)으로 방콕했던 2년 9개월만큼 더 숙성해 보이는 동기들의 모습에서 세월의 흐름을 탓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걸 알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공감하기도 했다. 스스로 걸을 힘만 있어도 이곳 '만남의 廣場'으로 나와 拍掌大笑하며 "쓰리 高"를 외쳐보았다! 우리는 추억과 향수만 먹고 살수는 없기에, 벌써부터 다음 달 등산모임이 기다려진다. 활기찬 인생! 뜨거운 열정! 고대경영64등산회 파이팅!! 위하 高! 위하 高! 위하 高! 위하 高! 위하 高! 위하 高!

백수회 9월 모임 ●●●

-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 장 소 : 일자산



백수회-일자산 걷기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걸쳐있는 해발 134m로 산이 높지 않고 길게 쪽 뻗어 있는 일자(一字) 모양 산이라 해서 일자산이라 붙인 명칭이다. 산길 곳곳에 수크령이 강아지풀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큰 꼬리를 흔들거리고 있어 결초보은(結草報恩)의 풀인데 그 유래는 기원전 770~221년 춘추전국시대 진(晉)나라 진환공이 아들 위과에게 예쁜 후처를 자기가 죽거든 개가 시키라고 했다가 위독해지자 다시 후처를 함께 묻어 순장하라는 유언이 있었으나 아들 위과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유언대로 후처를 순장하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 개가해 살게 했고, 위과가 전쟁터에 나가 진(秦)나라 군대와 싸우다 용맹한 적장 두회와 맞설 수가 없어 퇴각하는데 두회의 말이 고꾸라지는 바람에 두회를 사로잡아 전공을 세웠고 꿈에 나타난 노인은 서모의 친정 아버지로 딸을 살려준 보답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수크령을 묶고 엮어서 두회를 사로잡게 했고 원산지가 한국이며 이름도 꽃이 핀 모양이 남성의 그것과 닮았다 해서 수크령으로 불리다가 발음이 변해서 수크령으로 변했다하며 그령은 벼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풀이름이다. 최종욱 동기가 오랜만에 참가하였고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이경희, 이용규, 지동직 7인의 일자산 무법자가 아닌 합법자가 비교적 평탄한 길을 하얗고 분홍빛으로 함박 웃음 짓는 가을 여인의 구절초 꽃이 반겨주는 길을 마치고 점심을, 며칠 전 귀빠진 유명식 설봉(雪峰)선생이 거창하게 쏘아서 하루의 대미를 장식해주는 생일잔치로 끝냈다.



69 회장 이재선 / 제1총무 조현룡 / 제2총무 이영식

69석영회 정기총회 개최 ●●●

69석영회는 2022년도 총회를 27명의 동기들이 참석 하에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1부 행사로는 원로 김용언 문화재 해설사 동기의 물랐던 역사 비화 해설에 놀라면서 1시간 반 동안 흥미진진하게 관람하였고, 2부 행사로는 교대역 근린 '토담' 한정식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총회 행사를 진행했다. 결산보고 및 승인절차가 있었고 차기 회장은 현임 이재선 회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모임에 도움을 준 6명의 동기를 표창하였다. 이재선 회장은 연내 2차 대면행사를 치를 것을 약속하였고 타월과 기념품을 거의 모든 동기들에게 지급하였다.



석영회 총회

※ 지난 7월초에 배포되었던 115호 「호상」 43페이지에 게재된 69학번 정기총회 개최 사진은 게재하려고 했던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이 게재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기총회 소식을 정정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69석영회 산악회 특별 행사 ●●●

69석영회의 산악회는 그 동안도 매월 2회 이상 산행 행사를 가졌으며 특히 9월 중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24일은 구자삼 동기의 공주 정안 소재 무궁화농장에서 알밤줍기 행사를 가졌고 25일은 부근의 마곡사를 둘러 보고 공산성과 무령왕릉 역사탐방을 하였다.



마곡사

목이균 동기 '아천'배 테니스대회 주최 ●●●

목이균 동기는 자신의 아호를 딴 제14회 '아천'배 슈퍼시니어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10월 12일 남양주 문화센터 테니스장의 보조구장에서 주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지금까지 14회에 이르기 까지 매년 '아천'배 테니스 대회를 주최해 온 목이균 동기는 유도, 탁구, 테니스 등을 거쳐 현재는 프로 바둑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목진석)의 바둑 영역에까지 취미를 붙여 아마 5단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천'배 테니스 대회

구자삼 동기 고용서비스업계

CEO 역량강화교육 강사로서 활약 ●●●

동기 구자삼 교수는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의 고용서비스업계 CEO 들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월 수차례씩의 역량강화교육 강사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강연중인 구자삼 동기

70 회장 한부연 / 총무 정군화

9월 삼목회 모임 ●●●

●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코로나 방역완화 이후 그간 자제하던 모임을 활성화하였다. 먼저 매월 셋째 목요일 모임 삼목회를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한식당 가시리에서 가졌다. 식당 주인과 친분이 있는 동기 덕분에 빼어난 맛을 자랑하는 전라도식 특정식을 즐겼으며 더불어 또 다른 동기가 가져온 명품 해장 막걸리의 환상적인 맛도 음미할 수 있었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비록 9월에는 10명밖에 참석 못했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동기들이 10월부터는 많이 참석하고자 하여 삼목회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식사 이후에 당구 모임인 칠당회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것도 70삼목회의 매력이다.



삼목회

월례 골프모임 (골프회장 : 조남화) ●●●

●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70동기회에서는 매월 넷째 수요일에 골프 모임을 진양밸리cc에서 가지고 있다. 이번 9월 모임에는 화창한 가을 날씨의 축복을 받으며 12명의 동기가 운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찬종 동기가 81타로 메달리스트가 되었으며 오규회 동기는 파3에서 홀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홀인원을 놓치는 아까운 버디를 기록하기도 했다. 12명이 버디 넷을 기록하면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자위하며 모임을 마무리 했다.



골프모임

72 회장 홍형기 /총무 김윤수

경영72동기회 가을여행 ●●●

● 일 시 : 2022년 10월 5일(수)

● 장 소 : 설악산(속초)

● 참가자: 권완상, 김각진, 김도관, 김성철, 김영식, 김윤수, 김 은, 김종현, 김지영, 남덕우, 류병기, 박완수, 박원준, 박주홍, 박찬엽, 박흥국, 서광석, 손해동, 송선우, 양삼규, 윤병도, 엄익식, 유동면, 유종인, 이광구, 이광웅, 이원의, 이종철, 장석산, 정우성, 정지로, 조승식, 조현열, 최철기, 최홍규, 황성호, 황순기, 황중구 (총 38명)

코로나로 몇 년간 대면 모임을 못 가져 늘 아쉬워했던 동기들이 철수를 막 넘기려는 시점에서 다행히 뭉칠 수 있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력셔리한 버스 두 대로 나눠 타고 속초로 향했다. 출발 시 멈췄던 가을비가 목적지에 다가 갈수록 거세졌다. 기상청의 60% 강수



예보가 빗나가길 간절히 기원했지만 비는 야속하게도 우리를 계속 따라다녔다. 주전골 입구에서 하차하여 오색약수터로 내려가며 너무나 맑아 푸른색을 띠는 용마폭포 물줄기와 안개에 가려 꼭대기가 보일 듯 말 듯한 웅장한 바위산을 바라보며 모두가 연신 감탄하며 칠십을 살아 온 그간의 찌든 삶의 피로를 씻어내는 듯 했다. 그토록 야속했던 비도 어쩌면 운치를 더해 주는 듯 좋았을 지도 모른다. 맛있는 오찬 후 권금성으로 향했다. 권금성 정상에 온통 구름과 안개에 가려 그 곳에서 내려다 볼 절경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31명이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가봐야지 하는 동심으로 케이블카에 올라탔다. 예상대로 아름다운 가을정경은 볼 수 없었지만, 권금성 정상을 향한 한걸음 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다. 모처럼 산행에 다소 무리가 있었는지 한 동기가 바위에서 넘어져 아찔할 뻔한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손바닥 찰과상 정도로 가벼운 사고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심조심 하산하였다. 신홍사의 웅장한 부처님상을 뒤로 하고 속초 해변 카페로 이동하여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에 그간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다 마지막 여정으로 맛깔난 한정식으로 저녁 식사 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고, 다들 피곤했겠지만 어린이처럼 쉴 새 없이 떠들다 보니 어느덧 서울에 도착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쉽지만 각기 제 삶으로 되돌아갔다.



설악산 가을여행

73 회장 현기춘 / 총무 유장근

오랜만에 경영73동기회 모임 ●●●

-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 장 소 : 선릉역 부근 '동보성'

경영73동기회는 경영73교우 교례회를 가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린 교례회에는 27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회포를 풀었다. 특히 이 모임에서는 84일간 순례 길을 다녀온 유장근 동기 부부가 순례 후 일담을 발표했고 김형준 동기가 바이올린 독주로 동기들의 만남을 축하해주어 더욱 의미 있고 알찬 교례회였다.



경영73교우 교례회

74 경영회장 조군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8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2년 8월 6일(토)

원래 8월에는 무더위 때문에 남산모임을 쉬곤 했는데 7월 하순경 한호석 남산모임 회장의 한두 번 정도 걸렸으니 8월에는 모임 하는 것이 어떠냐



경영74 8월 남산

는 제의에 8월 첫째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는데 17명이나 되는 동기들이 참석하여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느 때처럼 총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만나 한옥마을에서 전체사진을 찍고 남산을 향해 올라갔다. 올라가다가 힘이든 몇몇 동기들은 순환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대부분의 동기들은 갑작스럽게 퍼붓는 소낙비를 맞으면서 만남장소인 냉면집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달에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던 제1수석이 맛있는 식사비용을 부담하여 기본회비도 생략하고 마음껏 막걸리와 소주를 식사와 함께 들면서 그동안의 못 다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다. 구자형 사무총장의 간단한 사회를 시작으로 혼사가 있었던 장항덕 제1수석의 인사말씀과 모친상을 당하였던 한호석 회장의 인사말씀이 간단하게 있었으며 조군환 동기회장의 건배제의로 함께 마시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늘 언제 만나도 반갑고 즐거운 우리 동기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식사 후 아쉽지만 몇몇 동기들은 집으로 가고 남은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향했다. 덕분에 잘 먹었다고 다시 한 번 장항덕 제1수석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경영74 9월 남산걷기 ●●●

● 2022년 9월 3일(토)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토요일 우리 경영74 남산모임(회장 : 한호석)은 거의 20여 명이 참석을 하고자 했으나 반은 식당으로 직행했고 반은 즐겁게 남산 둘레길을 걸었다. 그것도 둘레길을 걷기로 한 동기들의 반은 순환도로로 걸었고 반은 남산 숲길을 기분 좋게 걸었다. 가을하늘이 그렇듯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다. 오늘 모임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김지섭 동기가 도착이 늦으니 미리 가서 식사를 주문해 놓으라고 하여 구자형 사무총장은 바쁘게 움직였다. 모임 후 식사하기로 한 냉면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식사로 빈대떡, 편육, 만두와 냉면 등을 먹으며 화기에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9월 남산걷기

78 회장 김일용 / 총무 정세중

경영78 정기 총회 (리치런치) ●●●

● 일 시 : 2022년 7월 7일(목) 오후 6:30



김일용 회장

정세중 총무



정기총회

지난 4월 28일(목) 번개모임 시에 공지

한 바와 같이 후임 회장 및 총무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번 번개모임 장소이며 오마카세 요리로 유명한 종로구

낙원동 소재 리치런치에서 22명(홍 승, 강석현, 계창민, 김동원, 김 열, 김일용, 박원현, 박주병, 석락희, 신학기, 안진철, 오학성, 유재권, 윤장섭, 이정열, 이흥영, 정세중, 조기환, 조정환, 최동원, 하경래, 한덕철)이 모여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홍 승 회장이 와인을 무려 18병이나 준비하였고 김동원 전임 학장이 2병을 갖고 와서 1인당 거의 한 병 정도 와인을 마신 셈이다. 동기들을 위해 무거운 술을 직접 들고 온 두 분의 정성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모임을 지속가능하고 결속력 있게 만든 홍 승 회장과 박병규 재무



국장의 후임으로 김일용 회장과 정세종 사무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그동안 동기회장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홍 승 회장과 경하기 배송 등 동기회 살림살이를 묵묵히 꾸려온 박병규 재무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 등으로 공사다망하나 흔쾌히 봉사하기로 결정해 준 신임 집행부 두 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매번 모임 때마다 식사비용을 찬조한 이정열 동기가 이날도 상당한 금액의 모임 비용을 찬조하였다. 경북 철곡으로 낙향하여 농사일로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박주병 동기도 오랜만에 참석하여 장녀 결혼 답례로 상당한 금액을 찬조하였으며 참석자들은 3만원씩 회비를 모아 동기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고회를 맞이하신 오학성 학형이 고회 기념 선물을 참석자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찬조해 주신 이정열, 박주병 동기와 귀한 선물을 준비해 오신 오학성 학형에게 감사를 드린다.

산학기 동기는 교우회 행사인 하반기 골프대회, 고연전 후 참살이길 무료주점, 경영대학의 밤 행사에 많은 참석과 연회비 3만원 납부 동참에 동기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모임을 파하고 나서 딱 2%가 부족한 애주가파 5~6명(김일용, 윤장섭, 정세종, 조기환, 조정환 등)은 리치런치에서 2차로 한 잔 더 하였고, 산본파 3명(강석현, 신학기, 안진철)은 산본역에서 내려 안진철 동기의 단골집인 TARA에서 맥주 한 잔을 더하고 헤어졌다.

앞으로 우리 경영78 동기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임 집행부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78 등산모임(과천 청계산 매봉)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 시 : 2022년 7월 9일(토) 오전 10:00

예전부터 물이 많은 고장인 과천의 청계산을 좋아하는 정 회장이 취임 후 두 번째 등산모임 장소를 과천 청계산 매봉으로 결정하였다. 과천이 물이 많은 고장인 이유는 아마도 불독 솟은 바위산(숯산)과 아슬아슬한 토산(암산)이 접해서인 것 같다. 이날 등산은 보들보들한 속살을 밟으며 나뭇잎으로 철통 같이 덮인 질곡의 터널을 따라 정상 정복을 하게 되어서 썬크림이 필요 없었다.

산행코스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3번 출구에서 모여 서울대공원-1, 2호 약수터-과천매봉-5, 6호 약수터-농부네 갈비로 정하였다. 이날 산행을 위하여 정세종 회장은 전번처럼 산행코스를 사전 답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전 답사까지 포함하면 참석자의 2배로 등산을 하게 되는 정 회장은 사전준비로 시간적·심적 부담이 있는 대신,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해져 부인으로부터 전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도 여러 동기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게 될 것 같다. 이날 등산모임에는 6명(김일용, 박주병, 상희찬, 안진철, 정세종, 조정환)이 참석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낙오자 없이 완주해 준 참석 동기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랜만에 참석하여 하산 후 농부네 갈비집에서 중식 비용을 찬조해 준 박주병 동기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다음 정기 모임에도 건강과 친목을 위하여 동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청계산에서

경영78 번개모임(서울랜드 캠핑장) ●●●

●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5시 ~ 9시

정세종 사무총장의 번개모임 소집으로 7명(강석현, 김일용, 박수영, 신학기, 안진철, 정세종, 홍준표)이 서울랜드 캠핑장에서 모여 한 잔 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동기들 거의가 코끼리 열차를 처음 타 보았고 주위의 모임 대부분이 아이들 중심의 가족 모임이어서 60대 남성들끼리의 모임은 우리들뿐이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폭우가 예상된다



서울랜드 캠핑장에서

고 하였으나 비가 와도 모임을 강행한다는 정 총장의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하느님도 겁을 먹어서인지 비는 오지 않고 비 온 뒤의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김일용 회장의 버킷리스트 1호가 빗소리를 들으며 캠핑장에서 삼겹살 바비큐 파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인데 무산되어 아쉬웠다. 대신 참석 동기들은 김 회장의 버킷리스트 1호 체험을 위해 비 오는 날 다시 서울랜드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날 준비물은 정 총장의 주도면밀한 사전계획 및 배려 덕분에 참석자들은 집에 숨겨 놓은 양주 등 주류 외에는 따로 준비할 것이 없었다. 이날 모임은 오후 5시에 시작하여 오후 9시에 파하였는데 도심의 시끄러운 식당에서 벗어나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 속에서 우리들이 직접 고기도 굽고 김치찌개와 라면도 끓여 먹어서인지 양주, 소주, 맥주 및 막걸리를 퍼 마셔도 술이 취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정 총장은 그 와중에 짬을 내어 캠핑장 뒤 산행코스를 사전답사 하였고 10월 달 경영대 등산 후보지로 결정하였는데, 등산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대단하고 등산회장을 정말 잘 선출하였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였다. 강석현 작가의 멋진 사진과 양주 협찬, 동기 모임에서 산소 같은 존재인 홍준표 사장의 씬장을 넣고 끓인 맛있는 김치찌개, 안진철과 신학기의 숙달된 삼겹살 굽기 등 한 여름밤의 멋진 추억을 연출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경영78 당구 모임(사수회) (당구회장 : 이윤찬)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수) 오후 2시, 서초역 대성 당구장
- 참석자 : 김 열, 손서신, 이은우, 이윤찬, 한덕철, 홍준표

경영78 등산모임(관악산 무너미 계곡)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 시 : 2022년 8월 13일(토) 오전 10:00

정 회장의 취임 후 세 번째 등산모임 장소는 지난번의 과천 매봉보다 훨씬 쉽고 깔딱고개가 없는 관악산 무너미 계곡 트레킹으로 정하였다. 오전 10시에 경전철 관악산역 1번 출구에서 12명(강석현, 김관익, 김병수, 김일용, 상희찬, 신학기, 안승배, 안진철, 유병안, 이흥영, 정세종, 최동원)이 모여 트레킹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관악산은 오전 11시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여 계곡트레킹은 위험할 것 같아 아쉽지만 이날 산행은 취소하게 되었다.

경영78 등산모임(북악산 둘레길)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 시 : 2022년 9월 24일(토) 오전 10:00

8월 정기 등산모임은 비가 많이 와서 취소하였고 9월 등산모임은 추석 연휴로 인해 넷째 주 토요일인 9월 24일로 정하였다. 오전 10시에 시청역 4번 출구에서 8명(강석현, 계창민, 김병수, 상희찬, 신학기, 유재권, 정세종, 최동원)이 모여 11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 후 가볍게 2시간 코스의 트레킹을 시작하였다.

트레킹 코스는 삼청공원 후문-삼청쉼터-법흥사터-청운대 전망대-쫓대바위 쉼터-숙정문-말바위 안내소-말바위 전망대-와룡공원으로 진행되었다.

점심은 칼국수로 유명한 맛집을 가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식당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동으로 이동하



북악산 둘레길에서



여 그나마도 덜 붐비는 수제비 집에서 반주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오후 3시에 명동성당에서 김 열 동기의 딸 결혼식장에 갈 사람들이 있어 오후 2시경에 모임을 파하고 헤어졌다.

이날 트레킹을 위하여 사전답사까지 하고 맛있는 점심까지 찬조한 정세종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79 회장 서학석 / 총무 오성호

상반기 가족체육대회 ●●●

- 일 시 : 2022년 7월 2일(토) 12:00~20:00
- 장 소 : 경기 원당소재 웨릭스경기장 풋살구장

장마 직후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2년 만에 KUFC79가족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가졌다. 삼삼오오 모여든 부인과 자식, 그리고 자식의 배우자까지~ 혼자 온 동기들도 있지만 많은 동기들이 가족을 동반해 와서 즐거운 잔치가 열린 것이다. 정음한우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하고 임대해 둔 풋살 경기장에 모여 족구와 피구, 오락, 축구 순으로 게임을 진행했다. 서학석 동기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이상현 KUFC79회장의 대회사, 이영태 사무총장의 대회진행에 관한 설명이 있는 후, 게임을 진행했다. 입학기준 재수와 현역으로 나누어 두 팀으로 겨룬 게임에서 족구는 무승부(1:1), 피구는 재수팀 승, 축구는 재수팀 승(4:3)의 기량을 보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33도의 폭염 속에서, 총 참석인원 55명이 참석하여 즐겁고 신나는 가족행사를 한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모두가 회원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성원과 참여 덕이었다. 친히 참석하여 금일봉과 격려해 준 서학석 회장, 좋은 선물을 제공해 준 김석호 사장, 행사를 위해 기부해 준 민경섭 대표,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수고한 이영태, 장민기, 오성호, 심판으로 수고한 지수용 등에게 감사드린다. 대군단 가족을 이끌고 참석한 서종산과 김택곤, 박병근, 처음 동부인 참석한 이일환, 박재준, 정현채, 전주에서 동부인 참석한 이대우, 늘 동부인하는 이청기,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온 성환태, 딸과 예비 사위와 온 이승훈, 오랜만에 참석한 최수규, 편도원, 김명국, 처음 참석한 이인수, 김영한A, 임 경, 원상희, 손우택, 드론까지 동원하여 사진을 전담해 준 안희준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투병 중에 힘든 상황에서도 참석한 박수완 동기의 건투를 빈다. 참석한 모든 동기들과 가족들!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가족체육대회

낭만 거제여행 ●●●

- 기 간 : 2022년 9월 23일(금) ~ 9월 25일(일)

“낭만의 거제, 친구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57명의 동기들이 2대의 리무진버스에서 어울려 거제도를 향했다. 주관은 KUFC79(경영79축구모임), 후원은 KUBS79(경영79동기회). 일부 개인차로 출발한 동기들과 어울려, 첫날은 골프팀(7팀)과 트레킹팀으로 나뉘어 나들이를 즐겼다. 골프팀은 18홀이 칠천량 해협을 끼고 펼쳐진 DeBeach GC의 그림 같은 페어웨이를 보면서 백구의 향연을 벌였고, 트레킹팀은 구조라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환상의 섬 외도 보타니아를 왕복하는 해금강 코스를 즐겼다. 저녁은 ‘웅아물회’식당에서 신선한 물회와 해물탕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었다.



낭만 거제여행

둘째 날, 아침을 일찍 서두른 골프팀은 전날에 이어 DeBeach GC에서 골프를 즐기고, 거제망산을 산행하고 내려온 트레킹팀과 어울려 올해 3월에 개장한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를 타고 노자산(해발 557m)을 올랐다. 노자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다에는 촘촘하게 떠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었고 저 멀리 대마도까지 수평선을 따라 펼쳐져 있음이 눈에 보였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숙소인 벨버디어 콘도 선착장에서 왕복하는 요트를 두 대에 나뉘어 타고서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아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바다 위를 누비면서 한 잔의 생맥주와 다과로 터져 오르는 격한 감상을 달래었다. 아름다운 해상공원은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저녁식사는 김영삼 대통령 생가근처에 있는 '거제일주횟집'에서 거제바다의 맛과 향이 듬뿍 담긴 각종 회와 더불어 해산물, 특별히 공수해온 오도리(보리새우) 등으로 몸과 맘을 풍성하게 하였다.

셋째 날, 아침식사를 벨버디어 뷔페식당에서 하고 체크아웃한 뒤 간 곳은 해양관광공사 테니스장. 이 곳은 족구를 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족구시합을 하였다. 모두 이십대 때의 기량을 보이려고 호기를 부리다가 실수하며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해산물로 가득 찬 배속을 적당히 중화시키는 삼계탕과 인삼주로 달래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귀경하였다.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한 낭만의 가을여행이었다. 사고 없이 무사히 귀가하여 감사하다.

이 행사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을 남긴다. 한화그룹에서 부사장을 지낸 김영한C는 한화 벨버디어리조트 스위트20실을 사용토록 힘써 주었다. 이상현 KUFC 회장의 동생인 상규씨는 부킹하기 어려운 DeBeach GC에서 지역회원들의 회원권을 총동원해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상진씨는 보리새우를 공수해 와서 진귀한 맛을 선사해 주기도 하며 이번 행사를 현지에서 준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었다. 또한 이상현 KUFC 회장은 요트2대 임차 및 맥주와 다과, 보리새우, 거제멸치 선물세트 등 600여만원의 거금을 쓰면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애썼다. KUFC에서도 171.4만 원, 최원목 100만 원, 서동린 50만 원, 김상해 40만 원, 박종배 30만 원, 정춘돌 30만 원 등을 찬조해 주었다. 지원해주고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처음에는 61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들이 있어 못내 섭섭했다. 특별히 여행출발 직전 일에 지구여행을 마치고 벌나라 본향으로 돌아간 박수완 동기의 영면을 기원한다.

추계 골프대회 ●●●

- 일시 : 2022년 10월 16일(일)
- 장소 : 일동레이크CC

11시 반에 모여 점심을 같이 하고서 백구의 게임에 임하였다. 빗방울이 스쳐 지나가는 구름 낀 날씨였지만 저녁으로 갈수록 하늘은 맑아져서 더없이 좋은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었다. 좋은 친구들 32명으로 8팀으로 구성되어 네 명씩의 팀에서 재미있는 내기가 어우러져 긴장된 승부의 게임이 되었다. 게임 종료 후에 가진 영주 한우 바베큐 및 와인 파티는 신동익 회장의 후원으로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모두 함께했다. 김성태 골프회장은 사회를 보며 시상식과 친구들 근황을 소개한 후,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10여 곡의 애잔한 노래들로 깊어가는 가을 밤의 정취를 더욱 짙게 해주었다.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 - 우승: 양상문 (82)/메달리스트: 김영한C (78)/롱기스트: 조청명 (240m)/니어리스트: 정현채 (1m)/다보기상: 양원목/장려상: 김석호

후원 - 신동익, 임영진, 강현구, 김성태, 안희준



80 회장 정창식 / 총무 하행민

가을 문화행사 ●●●

2022년 경영80동기회 가을 문화행사로 10월 14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남산)에서 공연하는 국립합창단의 〈한국의 사계-추억의 한국가곡〉을 경영80 동기들과 함께 감상하기로 했다. 10월 6일 현재 신청자는 부부동반 19쌍, 솔로는 4명 등 42명이며 목표 모집인원은 70명이다.

지역 동의회 활동 ●●●

① 서울 북부지역 모임

모교가 있는 안암동 부근에 거주, 재직 중인 동기들 모임으로 6월 22일 고대 앞 호프집에서 모였다. 걱정했던 장맛비는 하루 뒤로 미뤄져 다행. 모두 12명이 6:30부터 모여 서울북부 첫 모임을 자축했다. 얼마 전 아들을 장가보낸 노재호, 분당서 달려온 하만우, 모두 바쁜 와중에 참석을 하여 운동으로 살을 찌고 북부에 식스팩을 심었다는 장기화 동기의 자랑을 시작으로 정창식 80회장과 류광후 동기의 입담, SK그룹 연수 수석에 빛나는 임규화 동기가 연수를 마치자마자 퇴사하여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는 노재호 동기의 후일담으로 이어졌다. 1차를 마치고 학창 시절 수많은 사연이 쌓여있는 고모집에서 2차를 하기로 하고 김경남 동기(모교 교수)의 안내로 캠퍼스 한 바퀴+경영관을 둘러 고모집으로...소리 소문 없이 1차를 계산한 노재호 동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서울 북부지역 모임

② 수상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강남역 부근에서 오찬을 하는 모임으로 코로나19 이후로 다소 침체되는 분위기이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는 중이다. 10월부터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는 동기들도 적극 참여한다니 기대가 된다. 9/22 6명 참석, 8/17 5명 참석, 6/15 6명 참석.

③ 화사회

화사회는 분당을 중심으로 부근에 거주하는 동기들이 네 번째 화요일 경기남부의 산을 오르는 모임이다. 올해 결성되어 활기가 넘친다. 핵심 주당이 모여 있다. 등산을 자주 하였으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9월 모임만 소개한다. 9월 화사회는 성남시 소재 영장산을 다녀왔다. 서현역에서 모여 누리버스를 이용, 율동공원, 3.1운동 기념탑을 경유하는 코스이다. 푸른 가을하늘 따스한 햇살, 완만한 경사와 능선길, 영장산의 가을산행은 40여 년 전 대학생활을 회상하고 중장년 직장생활을 돌아쳐보는 청춘의 이야기로 3시간 코스도 짧은 시간이었다. (9월 참가자: 박상협, 백치석, 이현우, 하만우, 함덕식, 현경섭, 최윤식)



화사회

취미모임 활동 ●●●

① 호산회 (경영80 산악회)

◆ 7월 아침가리골 등산 - 7월 25일, 여름특집 1탄인 6월 홍천 팔봉산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 인제군 '아침가리골' 계곡트레킹(CANYONING)을 다녀왔다. 참가한 16명은 당일 새벽 기상하여 양재역 기준 7시까지 산행 리무진버스에 도착하기까지 다들 허겁지겁했다. 버스 일행 중 나머지 23명은 '서울산악회'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 산행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감시초소(산행정상) 5Km는 임도로 S자 코스 고바위길. 비 지땀을 흘렸고 좁은 길로 대절택시가 지나다녀 짜증스러웠지만 마침내 도착한 쉼터정상에서 각자 챙겨 온 먹거리로 즐겁게 배를 채웠고

단체사진 몇 컷을 남기고 곧바로 계곡트레킹 시작했다. 기대 · 설레임 반, 신남 · 즐거움 반으로 출발한 트레킹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주최 측도 예상 못한 엄청난 양의 계곡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가로 질러야 할 계곡수가 10여개에서 20개 정도로 늘어났으며 어떤 곳에서는 계곡물에 몸이 떠내려가지 않게 사람 띠를 형성하기도 해야 했으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하지만 물이 적당한 곳에서는 수영솜씨도 뽐내고 물장구도 치며 좋은 경치 앞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멋진 품도 잡았다. 드디어 6km 정도의 원시적 산선들의 놀이터인 아침가리골을 거의 5시간 만에 힘겹게 빠져 나오니 장대비가 쏟아져 이번 산행은 정말 행운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곡물에 흠뻑 젖은 옷가지를 각자 가져 온 다른 옷으로 환복하니 그 뽐송뽐송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산뜻했다. 뒤편이 장소인 근처 식당에 가서는 기름진 감자전, 막국수, 보쌈, 막걸리, 양주 등으로 배를 채웠고 이진형 동기가 기부한 복숭아를 디저트로 삼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는 퀴즈풀이로 기념품을 나누었고 차창 밖으로는 비가 엄청 쏟아졌지만 차 안에서는 오고가는 대화 속에 그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 계곡트레킹을 아직 못한 동기들은 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두 번 밖에 못 해 볼 멋진 체험이니까요!!

- ◆ 8월 산행 – 8월 27일, 전월 ‘아침가리골’ 계곡트레킹의 열기가 이어져 22명이 참가한 산행길은 북한산 차마고도로 불광역 2번 출구에서 11시에 모였다. 아산에서 달려온 김영호 동기 덕분에 열기가 고조된 분위기에서 권현준 동기가 찬조한 타월, 정창식 동기회장이 선물한 고급 볼펜, 금일봉 등을 접수하고 장미공원으로 이동하여 최윤식 동기가 이끄는 체조로 몸을 가볍게 풀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산행코스는 불광역-장미공원-탕춘대성-차마고도-향로봉 오거리-향림담-조망터-불광사의 완만한 돌레길로 가벼운 속도에 간간히 쉬를 가지며 진행되었다. 전주에 비해 7~8도 낮은 날씨로 땀을 흘려도 선선한 바람에 시원했고 하늘도 맑고 깨끗하였다. 독수리봉, 향로봉, 비봉이 보이는 조망대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탕춘대성을 지나 오른쪽 공터에서 점심을 나누었다. 매번 최승석 회장이 찬조하는 김밥은 맛있고, 각자 가지고 온 복숭아, 포도, 떡, 과자들도 맛있어서 과식(?)을 고민하게 하였다. 북한산 차마고도(차와 말을 교역하던 중국 서남부 운남성-사천성에서 티베트를 넘어 네팔 · 인도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옛길)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사진을 찍고, 향림담, 백척폭포가 보이는 조망터에서 늦여름의 북한산을 감상하였다.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체력 단련장에서 김영호, 정규언, 서 정 동기가 턱걸이 실력을 보였는데, 특히 김영호 동기의 실력은 보이는 모습과 달라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뒤편이에만 참석하기로 한 임규화 동기가 중간까지 땀을 흘리며 마중삼아 올라와서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뒤편이는 미리 통째 예약한 ‘북한산 해 뜨는 집’에서 가졌는데, 삼겹살에 소주, 맥주, 막걸리, 사이다로 피로도 풀며, 우정을 다졌다. 술병이 36개로 주당들의 활약이 돋보인 자리였다. 뒤편이 비용을 거의 기부한 정창식 동기회장과 22명분 김밥을 배낭에 짊어지고 찬조한 최승석 회장, 등산용 타월을 찬조한 권현준 골프회장, 편안하게 산행을 이끌어준 이창우 대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함께 같이 산행한 동기들, 뒤편이에 참석해 준 동기들 모두 함께 즐거웠다. (등산조: 서 정, 이창우, 정규언, 권현준, 하행민, 최승석, 백치석, 김영호, 최윤식, 한성수, 한종원, 최병수, 현경섭, 김 건, 김범중, 양후석, 노재호, 정창식, 하만우 외 3명 총 22명), (뒤편이조: 이진형, 임규화, 류광후 총 3명)



호산회-북한산 차마고도

- ◆ 9월 산행 – 9월 17일, 서초구와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의 경계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육산인 청계산에 오르기 위해 청계산입구역에서 12명의 동기가 만났다. 임보혁 동기는 20년 만에 보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웠다. 대학교 졸업 후 처음 만나는 동기도 있는 듯...원터골로 이동하여 산행을 시작하였다. 습도가 높아서 땀이 비 오듯 하여, 수시로 휴식을 취했다. sexless (sex lease?)가 오늘의 테마인 듯 서 고문의 헌신(?)은 산행을 즐겁게 하였고, 오르락내리락 녹음이 우거진 비타민 같은 탐방로를 걸은 후 선녀폭포에서 발을 물에 담그니 피로가 싹~. 옛골로 내려와 매봉산장에서 3시간 전에 예약한 닭백숙, 음료수로 뒤편이하고 근처에서 커피, 차로 마무리하였다. 회장과 산행대장, 함께 산행한 친구들과 뒤편이에 달려와 준 하만우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 ◆ 10월 29일(토) 대청호 트레킹 – 대청호 500리길 4구간, 목표 40명, 10월 6일 현재 20명 신청. 4구간은 오백리길 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슬픈 연가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더리스 앞-마산동 쉼터-대청호반 자연생태공원 구간(6km)은 길도 아주 잘 되어 있어 걷기 편하다. 호수 조망도 좋다. 걷는 내내 기분이 좋다. 마산동 쉼터 주차장은 평일에도 만차인 때가 있다. 마산동 쉼터에서 더리스 쪽으로 조금만 가면 호숫가에 큰 주차장이 있다.



②골프회

9월 6일, 청평 마이다스CC, 20명 참가. 전날만 해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라운딩이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즐거운 라운딩을 하였다. 점수와 승패를 떠나 동기간의 우애를 다지는 하루였고 금일 함께 해주신 동기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와인과 타월을 협찬해 준 권현준 회장께도 감사드린다. 다음번 11월 정기모임에서도 많은 동기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일 수고하셨습니다!



골프회

86 회장 유재열 / 총무 강봉주

마루회 7월 소식 ●●●

등산모임인 마루회는 7월 2일과 9월 17일 두 번의 등산행사를 가졌다. 7월 2일에는 무더운 여름날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북악산을 올랐다. 창의문에서 집결 후 등반 시작하여 '백악산'이라고 적힌 정상 표지석에서 등정 증명사진을 찍고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청운대에서 기념사진을 다시 한 컷.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동기들과 가벼운 산행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우정도 쌓는 일석이조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은 막걸리와 삼겹살로 몸을 살피우고 2차는 너무나 뜨거운 날씨로 인해 시원한 아이스커피로 몸과 마음을 식히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



7월 마루회

마루회 9월 소식 ●●●

9월 17일 청계산 산행은 등반대장인 서유정 동기가 먼저 답사한 이후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옛골 코스를 선택하여 산행하였는데 이수봉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계곡을 거쳐 가는 코스였는데 동기들이 너무나 좋은 산행코스라고 칭찬과 감탄을 마지않았다.



9월 마루회

예향모임 소식 ●●●

10월 1일 오후에는 예향(예술의 향기 줄임말)모임을 가졌다. 예향모임은 86학번 입학30주년 행사를 하면서 경영86 정경모 동기(현재 86전체 동기회장)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예술을 즐기는 취미모임인데 정기적으로 전시회, 공연 등을 관람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정철근 동기(중앙대일리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다가 이번에 코엑스 메가박스 부띠크영화관(82석)을 통째로 자비로 대관하



예향모임

여 최근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단체관람을 하였는데 동기들 반응이 좋아 이번에 코로나회복 기념으로 다시 실시하여서 86동기들의 뜨거운 반응과 감동을 이끌어냈다. 영화 관람 후 가까운 치킨 가게를 빌려 맥주와 안주를 후원한 정경모 초대회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영화 관람을 후원한 정철근 현 회장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86학번 전체 모임에서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경영86동기들이 있어서 너무나 뿌듯하다.

89 회장 김평국

경영89 고테회 ●●●

고대 경영대 89학번 동기 16명의 정예 회원들로 구성된 테니스 동호회인 高太會(고테회)는 매주 정기모임 1회, 추계MT, 자체 랭킹전, 회장배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과 우정을 돈독히 하며 향후 4대 메이저 대회 참관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에 착수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 28일에는 추계정기MT 겸 랭킹전을 오코밸리 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고테회

경영대 89학번 골프대회 ●●●

지난 9월 17일 솔트베이CC에서 2022년 하반기 경영대89 골프대회가 열렸다. 경영학과와 무역학과의 89학번 교우 32명이 참석하여 두 팀으로 나뉘어 즐겁게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묵혀두었던 각자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대회 결과 무역학과와 경영A반 연합팀이 경영B반, C반, D반 연합팀을 이겼다. 다양한 협찬품으로 행사는 풍성했고, 동기들간에 유쾌한 웃음이 계속되는 시간이었다. 행사는 2023년 상반기 대회(2023년 4월 22일)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무리했다.(골프대회 참가 문의 : 이정환)



2022 하반기 경영대 89학번 골프대회

809 회장 여용동(경영82) / 총무 권태우(무역85)

2022년 809골프회장 초청 골프대회_순수자아배 타이거컵 ●●●

2022년 7월 8일, 경영대 80학번부터 89학번까지 각 학번 대표자 모임인 "809"모임(회장=82여용동)의 오프라인 대형 행사가 20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2020년 11월에 코비드19로 인한 모임의 제한 때문에 겨우 열렸던 809 창립 10주년 행사가 가장 최근의 행사였다. 물론 그 와중에도 올해 4월 경영대 앞마당에 모교 상징나무인 오얏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로 수목원조성 사업을 하는 등 모교를 위한 활동이나 개별적인 소규모 모임은 있었지만, 2010년 6월에 창립된 이후로 10여 년 간 끊임없이 이어져온



백호팀과 흑호팀



809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20개월간 중단되었던 탓에 809회원들은 모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쌓일 대로 쌓여 있던 터였다.

모임제한 완화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무섭게 여용동 809회장의 소집으로 조명제 809골프회장, 구승회 809부회장 등 집행부 회의가 소집되어 모임제한 조치 이후의 첫 809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였고, 시기적으로 7월 초에 개최할 수 있는 809골프회장 초청 대회(일명 순수자아배 타이거컵)가 그 첫 행사로 선정되었다. 전통 있는 809골프대회들은 연간 3회 개최되며, 각각의 개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7월에 개최되는 골프회장 초청 골프대회는 조명제 골프회장 취임 이후로 809회원들을 흑호팀과 백호팀으로 나눠 개인전보다는 단합을 강조하는 팀 대항전 성격으로 구성되어 2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1부 골프대회의 복장으로 흑호팀은 검정색으로, 백호팀은 흰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추고 각 팀의 응원구호와 율동도 제정하여 10개조로 구성된 흑백호 팀 멤버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뜨겁게 대회가 진행되었다. 2부 시상식은 809회원들의 공통 유니폼인 크림스 자켓을 모두 착용하고 진행이 되었다. 올해 열린 타이거컵 골프대회의 우승팀은 흑호팀이었고,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 열리는 다음 809골프대회는 매년 10월 달에 개최되는 809회장기 학번 대항전인데, 타이거컵 우승팀의 우승 복장이 809회장기의 드레스코드가 되는 809골프대회의 전통상 10월 달 809회장기 학번 대항전의 드레스코드는 검정색으로 결정이 되었다. 흑호팀 조한홍 대장(81)은 특유의 우승 멘트인 “너거덜 연습 좀 해라~~”로 백호팀을 자극하여 차기 대회에 더욱 뜨거운 경쟁상황을 예고하였다.

여러 회원분들의 넘치는 후원금과 협찬품으로 언제나처럼 풍성한 대회가 되었고, 특히 박노준(82) 교수가 국가대표출신 선수들 사인볼과 야구배트를 제공하였고, 전인지 후배가 809선배들을 위해 특별히 귀한 기념품 4종류를 제공하여 주어서 그야말로 질과 양적으로 푸짐한 잔치가 되었다.

2022년 809 골프회장 초청 골프대회_순수자아배 타이거컵 ●●●

809 모임(회장=82여용동)은 809 창립한 2010년 이후로 매년 전통적으로 개최해 오던 809회장기 학번 대항 골프대회가 춘천 소재 명문 라데라 GC에서 열렸다. 코비드19로 인하여 2년간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건너뛰게 되었지만, 이미 9년간 정기적으로 열렸던 전통의 809 회장기 학번대항전이 10회 대회라 모든 참가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진행되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고대 경영대 809 모임의 행사는 그 전통만큼이나 행사별 개성과 다양성을 자랑한다. 우선 대형 행사인 골프대회로는 봄에 열리는 베어트리파크배 오픈대회(이선용(80) 809 초대회장 영구후원), 여름에는 809 골프회장배 흑백호 대항전(809 골프회장 주관), 가을에는 809 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809회장 주관)와 같이 각각의 성격이 다른 3번의 대형 골프대회가 있다. 그리고 매월 2번째 화요일에 열리는 점심 모임으로 두화점이 있으며, 신년회 및 송년회는 물론 미술관 영화관에서 모임을 갖는 809 문화행사와 같이 각 집행부의 개성이 반영된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를 809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한 이후로 코비드19라는 장벽에 막혀 이어지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올 여름행사부터 재개 되어 809 모든 회원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금번 열린 10회 809 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는 지금까지 열린 9번의 대회를 80·81·86학번이 각각 3회씩 우승을 하였던 바, 이 3개 학번 중 최강자가 나오느냐 혹은 그 외 학번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느냐가 관심사였다. 각 학번별 상위 3명의 선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므로, 학번별 참여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통의 강호 학번들을 제치고, 85학번에서 우승을 차지함



809 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 단체사진

로써 파란을 일으켰다. 6명의 선수들이 참석하여 동기간 우정도 과시하고 메달리스트(85임상길)도 배출하여 우승의 자격이 충분하였음을 입증하였다.

언제나처럼 회원들의 넘치는 후원금과 전자기기, 주류, 자동차모형 등 넘치는 협찬품으로 풍성한 대회가 되었고, 재치 넘치는 명사회자 이정환(89)교우의 진행으로 시종일관 재미있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809구호로써 행사를 마감하였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제1회 909 골프대회 ●●●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자락 즈음해서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909 골프대회가 열렸다. 골프장의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원주 소재 오크밸리CC에서 토요일 황금시간인 7시에 첫 티오프를 하는 호사를 누렸다. 최고의 골프장과 부킹 시간을 준비해주신 최창규 909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풍성한 협찬품 덕분에(?) 한 분의 지각도 없이 전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오크룸에 집합했다. 우리 909만의 프라이빗한 오크룸에서 식사를 하니 무언가 대우 받는 듯한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상무 선배(93)가 정현승 교우(98)에게 "무슨 과 나오셨어요?"라는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선배님~ 저희 모임은 경영대 90학번~99학번 모임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모임을 해서 서로의 집안 손가락 개수도 알았으면 합니다. 초기음의 따가운 햇살을 구름이 적당히 가려주고, 바람도 1m/s 이하 정도로 불어주어 최고의 라운딩 조건이었다. 909의 끈끈함으로 동반자가 해저드에 빠지면 함께 빠져주고, 손에 손잡고 산으로 등산도 가도~ 갤러리 구찌에 공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우당탕탕~ 라운딩 종료 후 다시 우리 909만의 프라이빗 오크룸에서 김치찌개와 맥주로 아쉬웠던 라운딩의 회포를 풀었다. 오늘의 18홀 골프 라운딩에서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아쉬움을 함께 했듯이 앞으로의 909 골프 모임에서도 많은 것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

수상자 명단 - 메달리스트: 김영일(97), 다보기상: 김영태(99), 다양파상: 김 언(97), '꿀찌에게 희망을'상: 김연희(96), 다파상: 안성수(96), 다버디상: 최강근(92), 롱기스트: 남광민(99), 니어리스트: 정현승(98).



909 골프대회

공인회계사교우회 회장 정석우(경영80)

코로나 상황 이후 대면으로 열린 공인회계사 교우회 총회 ●●●

공인회계사 교우회(회장=정석우·경영80)는 10월 5일 모교 수당삼양패컬티하우스에서 대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약 150여 명이 참가하여 대면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22년 사업 내역 및 수입지출 결산내역 보고, 정진초 지원금 지급, 합격자 축하패 수여 등이 있었다. 올해 모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자 175명을 배출하여 연속 7년간 1위를 차지하였다. 공인회계사 교우회는 정기 총회 이후에도 고연전 주점 지원, 지부별 연말 모임, 신임 공인회계사 파트너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교우회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 · 학생대표 윤소담(경영21)

KUBS Ladies의 소식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들이 완화되면서,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일상들을 하나 둘씩 되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1학기를 지나 2학기에 접어든 지금은, 어색하기만 하던 강의실과 학교 풍경이 눈에 익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KUBS Ladies에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 중에 있다. 온라인만큼 오프라인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원들은 지난 여름방학부터 2학기에 있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는, 코로나 이후 매 학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Dream Concert를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 ·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송출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연사님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3년 만에 개최되는 정기 고연전을 맞아 박찬현 교수님(08)의 후원으로 경영대 학우들을 위한 버스 대절을 준비하고 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굿이브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만큼, 모든 멘토와 멘티가 직접 만나 교수님의 커리어와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2년 창립된 KUBS Ladies는 올해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여자 교우 또는 학우로서 자부심을 항상 지키고 KUBS Ladies의 한 멤버로 Pride를 지키는 아주 자랑스러운 모임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중순에 있을 KUBS Ladies 10주년 행사, 'KUBS Ladies 10th Anniversary'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수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계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kub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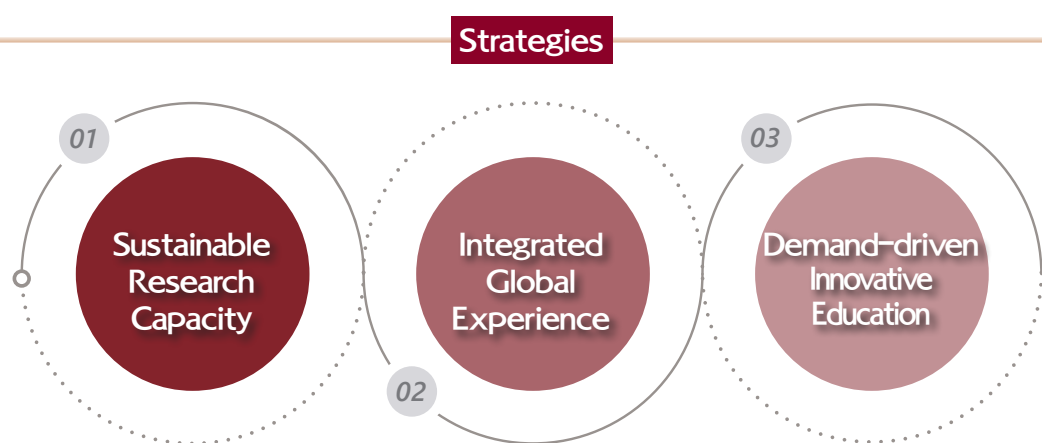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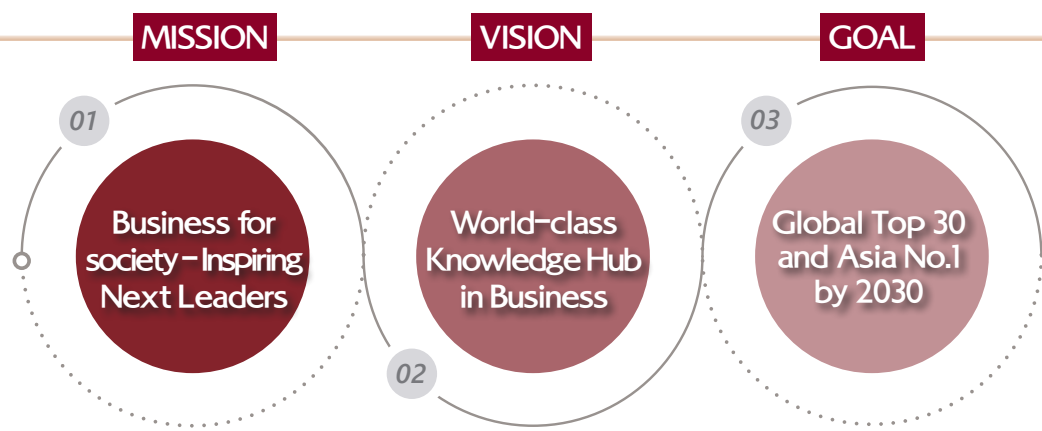


KUBS

Vision and Strategies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2030년까지 **Global Top30, Asia No.1** 수준의
Business School 달성



교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두희 교수, 신만수 교수 정년퇴임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 온 이두희 교수, 신만수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8월 24일(수) 오후 5시 30분에 LG-POSCO 경영관 안영일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퇴임을 맞이한 신만수 교수와, 배종석 학장을 포함한 경영대학 교수 30여명과 교직원들이 자리했으며, 이두희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교수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두희 교수는 1990년 전임교수로 본교 경영대학에 부임해 33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이외에도 교내에서는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LG-POSCO경영관 건축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교외에서는 한국경영학회장, 한국마케팅학회장,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 창설자이자 회장 등의 중책을 맡았다. 신만수 교수는 1991년 본교에 교수로 부임해 32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경영 분야에서 경영학계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외에도 교내에서는 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대학 부학장, 경영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고, 교외에서는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지역학회 등 다수 중책을 맡았으며, 국제경영 교과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배종석 학장은 퇴임식사를 통해 “이두희 교수님과 신만수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할 수 있어 학장이자 후배 교수로서 매우 기쁜 한편 아쉽기도 하다.”며 “경영대학은 이 자

리에서 늘 교수님들의 업적과 흔적을 기억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교수 일동의 경영대학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된 후, 이두희 교수와 신만수 교수의 퇴임사가 이어졌다. 신만수 교수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동안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두희 교수의 퇴임사는 영상으로 상영됐다. 이두희 교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없으면 만들어 버리자’를 신조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다.”며 “후배 교수들 모두 의지와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등 계속해서 도전하며 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어 퇴임식에 참석한 경영대 교수들이 자유롭게 답사를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후배 교수들은 “교수님들 덕분에 지금의 경영대학이 있다.”며 “선배님을 본받아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촬영을 끝으로 정년퇴임식이 마무리 됐다. 교수들은 지난 추억을 공유하고 덕담을 나누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퇴임을 맞이한 이두희 교수, 신만수 교수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했다.

퇴임사



존경하는 경영대학 교수 여러분께 퇴임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는 1976년에 경영대학에 입학하여 고려대학교와의 인연은 46년이 넘었고, 교수로서의 소명은 33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고대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영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고려대에서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미시간주 랜싱에 “한마음 한글학교”를 설립했다든지, 교수가 되자마자 “마케팅 사례” 개발에 물꼬를 터 한국경영학회에 사례개발연구원이 발족되었다든지, 아태국제교육협회를 창설하여 아시아 대학들의 국제화 계기를 만들었다든지. 애당초 욕먹을 각오하고 LG포스코 경영관을 지어 대학사회에 충격을 줬다든지, 고대 100주년 행사를 실무총괄하면서 “고대로고”를 현대화하고 “고대 와인”을 만들었다든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를 한국경영학회장으로선 선포하여 기업가가 존중받기 위한 깃발을 들었다든지 등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만들어 한다”는 정신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리면 굴러 내려가고, 다시 끌어 올리면 또 굴러 내려가는 무한 반복의 운명을 살고 있는 시지프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것은 운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올려야 하는 바위라면 나의 의지로 굴러 올리고, 내려가면 다른 산을 내가 선택해서 다시 굴러 올리고.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과 행동으로, 저는 지난 30여년을 모교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열정의 시지프가 되고자 합니다. “베테랑 소사이어티”라는 플랫폼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전혀 새로운 산을 선택해서 또 바위를 굴러 올리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 큰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여러분과 힘을 모아 시니어들에게 생산과 활동의 기회를 함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수 여러분과 함께하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들의 앞날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충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두희 배상

퇴임사



아쉬움과 기대감의 교차로에서

정년퇴임을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으나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몇 차례 책 정리, 서류 정리를 하면서 막상 오랫동안 정들었던 연구실과 캠퍼스 풍경과 본격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니 적지 않은 감회가 밀려오면서도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고 늘려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줄여야 할 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퇴임 과정은 좋은 연습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해 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31년 6개월을 교수로 생활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동안 수 많은 훌륭한 선배, 동료 및 후배 교수님, 교우 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많은 분들과 비슷한 꿈을 꾸면서 학교를 위해 같이 노력했던 시간들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은 역시 수 많은 젊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이 졸업 후 수 많은 조직에서 리더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연구실에서 만나 수년간 같이 생활했던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지금은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중견 학자와 교수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로 여겨집니다.

오랜 재임기간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 담고 있었던 경영대학의 변화와 엄청난 성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장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교수생활을 해 온 것이 큰 행복이었고 개인적인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수가 부임 초 25여 명 수준에서 84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경영대학 위상도 국내 굴지의 대학에서 아시아의 선도 경영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분들의 정성어린 헌신과 애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많은 교우분들께 가슴속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귀중한 직장 기회를 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명문 경영대학이 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교수님들과 경영대학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만수 배상

7년 연속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배출 1위 고려대, 제57회 CPA 최종합격자 최다 배출

최근 6년(2017~2022) 공인회계사(CPA) 대학별 최종합격자 누적 현황

순위	대학명	계 인원	2022 인원	2021 인원	2020 인원	2019 인원	2018 인원	2017 인원
1	고려대	774	175	152	127	109	114	97
2	연세대	582	106	118	106	88	86	78
3	성균관대	550	116	102	98	84	72	78
4	중앙대	499	81	104	103	73	68	70
5	경희대	445	79	76	85	72	60	73
6	서울대	406	99	91	56	52	65	43
7	서강대	367	78	66	58	74	54	37
8	한양대	332	67	53	49	60	38	65
9	서울시립대	230	39	41	44	34	32	40
10	이화여대	211	49	40	33	26	25	38
상위 10개 대학 계		4396	889	843	759	672	614	619
전체		6347	1237	1172	1110	1009	904	915

2022년 공인회계사시험(CPA) 대학별 합격 현황

순위	대학명	2022년
1	고려대	175
2	성균관대	116
3	연세대	106
4	서울대	99
5	중앙대	81
6	경희대	79
7	서강대	78
8	한양대	67
9	이화여대	49
10	서울시립대	39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고려대학교가 최종 합격자를 최다 배출했다. 고려대는 6월 25일~26일(일) 실시된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175명을 최종 합격시키며 2016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많은 CPA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다.

고려대는 올해 최종 합격자 총 1237명 중 약 14%에 달하는 인원을 합격시킨 셈이다. 이로써 고려대는 최근 7개년(2016~2022)간 누적 892명이라는 압도적인 인원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CPA 인재 양성 최강자로서의 위상을 또 한 번 굳히게 됐다.

9월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제57회 공인회계사 대학별 합격자수는 고려대 175명에 이어 △성균관대(116명) △연세대

(106명) △서울대(99명) △중앙대(81명) △경희대(79명) △서강대(78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압도적인 CPA 합격 성과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CPA 시험 준비반 '정진초(精進礎)'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진초는 경영본관 3층에 마련돼, 학생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실한 사람에 한해서 독서실 자리 제공 및 인터넷 강의 수강 금액 지원, 장학금 기회도 주어진다. 아쉽게 정진초에 입실하지 못했더라도 학교 포털 정진초 커뮤니티를 통해 시험에 관한 정보, 회계법인 설명회, 면접일정을 공유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의고사 공동구매 등을 함께 할 수 있다.

경영신문 698호 발췌



36개 대학 및 서울시,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 위해 한자리에서 머리 맞대고 노력한다

「제12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캠퍼스타운 발전방안 논의

고려대학교(총장=정진택)는 7월 25일(월) 오후 4시 10분부터 SK미래관(1층 최종현 홀)에서 청년 창업 육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대학과 서울시간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제12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대학-지역이 협력해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 소재 49개 대학 총장들 간 정책 거버넌스다. 청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서울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자문기구로, 사업 정책 방향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 고려대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서울 캠퍼스타운은 현재까지 38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가 청년 창업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2021년까지 1,315개 팀, 5,239명의 예비·초기창업기업가를 육성하고 806억의 연간 투자유치와 903억의 연매출액을 달성하였다. 또한 2021년에, 연 매출액 10억·투자유치 3억 이상의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51개 팀(17개 대학)을 발굴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36개 대학총장이 참석하여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퍼스타운을 통해 창업한 청년기업의 영상 메시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대학의 총장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승훈 모교 사업단장은 서울시와 대학의 상호협력 및 노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서울 창업생태계에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 지원 체계 방안 및 캠퍼스타운 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별 지역 상생 프로그램 확산방안도 제안하였다.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2022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에는 200개 기업 이상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www.korea.ac.kr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미래관 준공식 거행

미래관, 중증질환 특화병원으로의 도약 위한 시작점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대 구로병원(원장=정희진)이 지난 6일(화) 미래관 준공식을 개최하며 중증질환 특화병원으로의 새 출발을 알렸다.

고려대 구로병원 미래관이 지난 2020년 5월 기공식을 시작, 2년여 간의 신축 공사를 마치고 위용을 드러냈다. 미래관은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마스터플랜 3단계 중 1단계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최대 강점인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질환 특화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지상 7층, 지하 6층(연면적 28,390㎡) 규모의 미래관에는 10개의 진료과와 건강증진센터, 통증센터 등이 확장·이전했다. 건물이 도로와 인접해있어 내원객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이 향상됐으며, 외래 공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최상의 진료환경을 제공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송명호 교우회장, 유광사 이사, 권오섭 이사,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고려대 구로병원 미래관의 성공적인 오픈을 성대히 축하했다.

정진택 총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며, 괄목할 만한 성

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고려대 구로병원은 고려대학교 가족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증질환 특화병원이자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미래의학을 선도할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61%는 국내 탑 수준”이라며 “그동안 고려대의료원의 성장을 주도해 온 구로병원의 발전이 의료원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글로벌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진 병원장은 “미래관은 지난 40년간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 온 고려대 구로병원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라며 “미래관 준공을 기점으로 환자중심-질환중심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증질환 특화병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대 구로병원 미래관은 8월 초 첫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8월 8일 첫 환자들을 맞이했다.

9월 6일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홈페이지 발췌

2022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2.1.1~2022.10.26 기준

<500만원>

57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72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학번	김 윤	부회장
74학번	송명호	부회장
75학번	허경수	부회장
76학번	이 범	부회장
77학번	이만득	부회장
80학번	정동규	부회장
89학번	정의선	부회장

<300만원>

92학번	김지용	부회장
------	-----	-----

<100만원>

64학번	강동식	부회장
65학번	김신경	자문위원
66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66학번	최용순	자문위원
66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70학번	김광식	부회장
70학번	이창희	부회장
70학번	한대근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73학번	정기린	부회장
74학번	강호갑	부회장
77학번	이철우	부회장
78학번	이영호	부회장
79학번	김 정	부회장
80학번	변대현	부회장
80학번	정학현	부회장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82학번	최준영	부회장
87학번	홍중성	부회장
88학번	전찬혁	부회장
89학번	이동섭	부회장
90학번	송승민	부회장
90학번	한상일	감사
92학번	조성욱	감사 (익명)

<50만원>

55학번	유상욱	자문위원
59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학번	최부용	상임이사
63학번	장신규	자문위원
66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75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학번	이주배	상임이사
79학번	정몽진	상임이사
80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81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학번	송재현	상임이사
81학번	홍흥석	상임이사
83학번	박성진	상임이사
84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6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67학번	신동연	상임이사
74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86학번	정경모	상임이사

<20만원>

63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9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69학번	이재선	상임이사
71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3학번	이호용		
54학번	김진배		
55학번	김기인		
58학번	함명돈		
59학번	강창식	권상진	
60학번	김선취	이용휘	
61학번	김길남	박순자	채규학
62학번	송준일		
63학번	김형덕	이승철	이영무
64학번	김용운	김현희	정제성
65학번	이창윤	최병일	
66학번	김홍재	신진철	신현욱 양치수
67학번	김용동		
69학번	맹인재	신현웅	이정주 임채홍
70학번	이인택		
71학번	권관순	최광균	최윤도
72학번	강태준	문덕인	이원창
73학번	김순배	현기춘	
74학번	윤명상		
75학번	김우진		
76학번	김덕민	배유현	서윤덕 양병수
	이법호	이원직	장진원 조구휘
77학번	이원재	이용모	
78학번	경석현	박재호	박주병 신학기
	정동창		

79학번	김덕년	김원환	김진호	민경섭
	서동린	안성경	정춘돌	
80학번	김종국	서 정	정백조	
81학번	김재범	박지수	유한수	이상혁
	이훈복			
82학번	장태수			
84학번	김준호	윤귀만	최병권	
85학번	구준서	임 욱	정병욱	
86학번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황택현
88학번	박동진			
89학번	김평국			
93학번	염규상			
96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51학번	전윤자		
52학번	김영섭		
53학번	엄기정		
54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태규
	조해연	태호팔	
55학번	고재균	김경수	김관수 김영식
	김정래	김정식	남치현 박래균
	박상호	신문철	신범현 윤희표
	이득주	이순용	이승재 이형구
	정상택		
56학번	김지영	백공용	신명철 윤길림
	이연상	조해균	
57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성균 김재곤
	이병길	정기원	정우종
58학번	남태현	박성업	사윤진 오덕환
	윤영연	이종득	이종철 천정호
	최신일	홍종익	
59학번	강해홍	권병용	김무남 김종길
	김주환	노규채	박형문 변흥주
	송운한	송창순	양재관 오의희
	윤석문	이기홍	이윤제 (6만원) 이용두
	이창용	임종환	한순영
60학번	곽병화	구자욱	김광평 김만용
	김상경	김상호	김용동 김형자
	노경식	노수범	민영홍 성윤경
	신준호	윤재순	이일구 조시연
	최덕형	하정일	한국연 한기정
61학번	김도민	김소현	김윤장 김택원
	김홍곤	김활자	박무용 박성현
	박영업	박윤서	박창자 박진자
	박화신	신현성	안희민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이경순
	이근창	이봉현	이 완 이원태
	이학주	전규수	전춘옥 조 경
	채창현	한중구	한중구 황인강
62학번	구자웅	권영진	김광태 김세영
	김인채	김종순 (10만원)	김종진 김효명
	마재현	배영일	백호휘 석영부

	안기정 (10만원)	엄종대 (10만원)	염직환	오무환		이한구	이흥영	정세종	차선녕		10 학번	김도형
	유병하	윤재환	윤종철	이순영	79 학번	권홍국	김영관	김흥곤	류병완		11 학번	송웅기 한은경
	이용구	이인영	이호웅	정우진		정운창	황보평				12 학번	황지민
	조승수	한상욱			80 학번	김광림	김병조	김태현	최유성			
63 학번	김소부	김시균	김일웅	김지창	81 학번	김신철	김용운	김한근	정원종			
	박종일	백선기	오순일	옥규석	82 학번	김지환	윤준섭	이상우	최인섭			
	윤익순	이천우	임휘련	정완영	83 학번	곽병현	김윤호	김정욱	윤여실			
	차금자	한건수				조영식						
64 학번	고병선	김동훈	김선욱	김순배	84 학번	강운구	김민권	김병남	김홍석			
	김춘식	민선용	박덕배	박채길		박광구	서동찬	윤창섭	이창구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해진	정상한					
	이태경	이항선	조중래	허석도	85 학번	강황배	기승도	김상태	박승하			
	현봉길	홍현록	황석희			신강영	신호섭	심성도				
65 학번	박태인	이경찬	이정수		86 학번	강신재	김석영	김좌영	서동욱			
66 학번	김명진	김용한	박민규	박용혁		표민수						
	성순환	염수열	오창석	우강용	87 학번	김종길	유현규	하범종				
	유행열	장철기	정 발	정순달	88 학번	김삼덕	이상호	하종문				
	정연동	조대현			89 학번	고경의	서계원	이윤석 (10만원)	정운근			
67 학번	신병창	윤정섭	이계남	이장운	90 학번	김형기	민준선	염창열	이은기			
	조용건	한기석	한동석			장원석						
68 학번	신동원	이차복			91 학번	조성일						
69 학번	곽대영	김영호	김은영	오세원	92 학번	김대형	김재형	김재홍	서동휘			
	정영목	정택호			93 학번	김도희	박홍주	오명일				
70 학번	강영구	박병천	제 철		94 학번	김도윤	김태정	박형현	방상호			
71 학번	김영규	김재원	박용우	박장훈		서경덕	서동희					
	송창열	최종길	허진영	홍승철	95 학번	신미혜	이규열	이희윤	지재홍			
72 학번	고재영	권완상	김영만	김윤수		최성훈						
	김종현	류병기	박동원	박홍국	96 학번	김하현	박대웅	백웅조	손희중			
	유대준	장석산	전중환	정우성		이명준	이준희					
	조승식	최원철	황순기		98 학번	이재등	이진상	최종민				
73 학번	손대정	홍문순			00 학번	박 진						
74 학번	구분량	김주화	박영식	박용운	02 학번	박종현						
	정 영				03 학번	오병원	추창화					
75 학번	김우태	김호섭	박세현		04 학번	김형태	송 진					
76 학번	권순도	김성수	이봉용		05 학번	강종범	이근호	이현호				
77 학번	김대철	왕조현	이찬근	임동하	06 학번	정재욱						
78 학번	김병수	김승중	김일웅	박수영	08 학번	신재호						
	변희원	안승배	유승식	윤면식	09 학번	송명근	전태희					

학번별 분담금	
62 학번	500,000
64 학번	500,000
66 학번	500,000
70 학번	1,000,000
경영74학번	750,000
경영76학번	750,000
77 학번	1,000,000
78 학번	1,000,000
83 학번	1,000,000

평생회비<30만원>	
55 학번	황창규
75 학번	황성철
77 학번	김형일
78 학번	권혜경
79 학번	양상문
83 학번	백승철

감/사/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Global 30위 경영대학과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일반연회비

달성

78.8%

목표 16,000,000원

실적 12,60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40.0%

목표 20,000,000원

실적 8,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66.3%

목표 164,000,000원

실적 108,800,000원

TOTAL

2022년 10월 26일 기준

목표 200,000,000원

실적 129,400,000원



달성

64.7%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